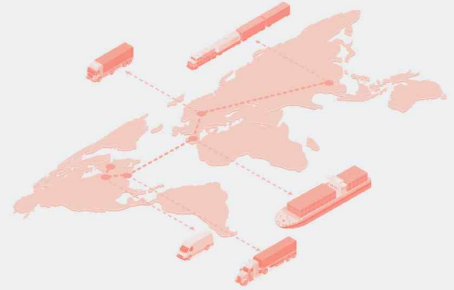




# '25년 수출 유망시장 다변화 전략



# '25년 수출 유망시장 다변화 전략



## 목 차

<b>제1장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</b>	<b>1</b>
<b>제2장 유망시장 진출 전략</b>	<b>3</b>
제1절 美中 대체수요 유망시장	4
- 미국	5
- 중국	8
제2절 글로벌 제조업 재편에 따른 유망시장	11
- 아세안5	12
- 인도	17
- 멕시코	21
- 헝가리·폴란드	25
제3절 산업화 고도화 수요 유망시장	29
- UAE·이집트·모로코·사우디(중동 산업화 국가)	30
- 독일·이탈리아·벨기에·프랑스(제조업 혁신 파트너)	34
<b>제3장 결론</b>	<b>38</b>

**요 약**

- **(조사배경)** 미국발 관세조치, 각 국의 보호조치, 첨단 제조업 육성 가속화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및 공급망 재편 확산
  - 불확실성 최소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수출 다변화 필요
- **(유망시장)**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재편되는 유망시장을 3개 테마로 분류, 동향 모니터링 및 유망품목 제시

테마	시장	시장·정책 동향	유망 품목분야
[1] 美中 대체수요 유망시장	① 미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관세정책, 제조업 육성</li> <li>▶ 중국 견제 무역수지 개선 노력</li> <li>▶ 한류 확산</li> </ul>	△소비재, △조선, △자동차 부품, △발전전력 △AI·자동화 △바이오 등
	② 중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주요국의 對中 견제</li> <li>▶ 내수소비 활성화</li> <li>▶ 기술자립 추진</li> </ul>	△친환경산업 관련 분야, △헬스케어(의료기기 등), △소재·부품·장비, △소비재 등
[2] 글로벌 제조업 재편에 따른 유망시장	① 아세안5 (베트남·인도네시아·필리핀·말레이시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글로벌 공급망 재편 수혜, FDI 급증 및 산업 고도화</li> <li>▶ 젊은 인구구조, 중산층 성장</li> <li>▶ 디지털 경제 급성장</li> </ul>	△반도체전자부품, △가전, △자동화 설비 및 로봇, △EV배터리·부품, △의료기기 및 장비, △산재생에너지 설비, △화장품 제조설비 등
	② 인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빠른 경제성장</li> <li>▶ 투자유치 확대</li> <li>▶ 제조업 육성</li> <li>▶ 보호무역 강화</li> </ul>	△전자부품, △설비·자본재, △자동차 부품, △특수 화학물, △건설장비, △전력기자재, △식품·화장품 등
	③ 멕시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美통상조치 직접 영향 ↑</li> <li>▶ 북미 공급망 핵심 역할</li> <li>▶ 제조업 육성</li> </ul>	△자동차부품, △기계장비, △전력 인프라, △전기차배터리, △의료·바이오, △소비재 등
	④ 헝가리·폴란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제조업 육성</li> <li>▶ 이차전지 제조 기지화</li> <li>▶ 중국 투자 대거 유입</li> <li>▶ 인프라 확대 추진</li> </ul>	△이차전지, △친환경 에너지 관련 품목, △한류 소비재 등
[3] 산업화 고도화 수요 유망시장	① UAE·이집트·모로코·사우디 (중동 산업화 국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탈석유, 도시화, 제조업 육성</li> <li>▶ 물류 허브</li> <li>▶ 젊은 인구 구조</li> </ul>	△자동차부품, △전력 기자재, △전기차 및 충전인프라, △물류, △의약품·의료기기, △의류·섬유, △소비재 등
	② 독일·이탈리아·벨기에·프랑스 (제조업 혁신 파트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제조업 경쟁력 부진 중국산 유입</li> <li>▶ 생산 비용 절감 및 생산성 제고 노력 등 혁신수요</li> <li>▶ ESG 정책의 '통상 규범화'</li> </ul>	△생산 혁신 관련 품목, △첨단기술 협업 관련 품목, △인프라 관련 품목, △수소 발전, △그린 모빌리티 등

**요 약**

○ **(다변화 전략)** 시장 변화의 유형에 따라 3가지 관점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유망시장 다변화 전략 제시

시장 유형		다변화 전략		
테마	시장	[1] 팀코리아 활용	[2] 경쟁우위 재포지셔닝	[3] 기업경쟁력 강화
[1] 美中 대체수요 유망시장	① 미국	민관합동 아웃리치	가격 우위 활용(중국산 대비)	비용절감 노력(관세·물류)
		한류(식품·뷰티·콘텐츠)	품질 우위 활용	투자진출 다변화
	② 중국	경제외교 활용	제조력 우위 활용	무역장벽 대응(관세)
				투자유치·인재유치
[2] 글로벌 제조업 재편에 따른 유망시장	① 아세안5 (베트남·인도네시아·태국·필리핀·말레이시아)	민관합동 아웃리치	가격 우위 활용(미국산 대비)	
		한류 플랫폼 아웃리치	품질·기술력 우위 활용	투자진출 다변화
	② 인도	경제외교 활용	품질·기술력 우위 활용	무역장벽 대응(비관세)
			제조력 우위 활용	투자진출 다변화
	③ 멕시코	한류 플랫폼(식품·뷰티)	품질·기술력 우위 활용	무역장벽 대응(비관세)
			제조력 우위 활용	인재유치
	④ 헝가리·폴란드	한류 플랫폼(식품·뷰티)	품질·기술력 우위 활용	투자진출 다변화
			제조력 우위 활용	
[3] 산업화 고도화 수요 유망시장	① UAE·이집트·모로코·사우디(중동 산업화 국가)	민관합동 아웃리치		
		한류(식품·뷰티·콘텐츠)	품질·기술력 우위 활용	투자진출 다변화
		경제외교 활용	제조력 우위 활용	
	② 독일·이탈리아·벨기에·프랑스(제조업 혁신 파트너)	진출채널 다각화		투자유치
		민관합동 아웃리치		
		한류 플랫폼(식품·뷰티)	품질·기술력 우위 활용	투자진출 다변화
	경제외교 활용	제조력 우위 활용	무역장벽 대응(ESG)	
			투자유치·인재유치	

## I.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

### ◇ 미국발 관세조치, 각 국의 보호조치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

- **(상품무역)** 미국 등 세계 관세조치 영향으로 올해 상품무역 둔화 전망  
\* WTO(4.16), 올해 전세계 상품무역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(기존 전망치 대비 2.8%p ↓)
- **(경기둔화)** 주요 기관들은 주요국의 무역장벽 증가, 정책 불확실성 증대 등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\* 전년 대비 하향 조정  
\* OECD('25.3.17): 3.1%(종전대비 0.2%p 하향), IMF('25.4.22): 2.8%(종전대비 0.5%p 하향)
- **(보호주의)** 각국의 보호주의 강화로 글로벌 비관세 장벽 고도화  
\* 올해(~4월) WTO 회원국이 통보한 해외기술규제는 전년비 14.3%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  
\* WTO/TBT통보문: ('24.4월 누적) 1,456건 → ('25.4월 누적) 1,664건

### ◇ 주요국의 자국 내 첨단 제조업 육성 가속, 미 관세 영향 공급망 재편

- **(첨단산업)** 中 딥테크 등 첨단산업 기술격차 축소, 주요국 첨단산업 확장  
\* (中 과학기술 굴기) 특히 중국은 6G, 양자컴퓨팅, 로봇공학, 인공지능(AI) 등 첨단 산업 육성에 총력, 양자컴퓨팅, 전기차(BYD, 전기차 5분 충전 플랫폼) 등 성과  
\* 中스타트업, 세계 최초로 양자컴퓨터를 통한 AI모델의 파인튜닝 학습에 성공('25.4)
- **(공급망 내재화)** 美, 中, 유럽 등 주요국, 자국내 첨단산업 육성 박차  
\* (美) TSMC, 향후 4년간 미국에 최소 1천억 달러 추가 투자 계획 발표('25.3), 엔비디아, 향후 4년간 미국 내 AI인프라 구축에 5천억 달러 투자 계획('25.4)
- **(공급망 재편)** 미국의 강력한 관세정책, 각국 수출통제 등으로 글로벌 제조업 및 핵심광물 부문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.

## ◇ 우리나라 : 제조업 지원 및 정부지원 수출시장 다변화

- [제조업 육성] 첨단·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산업 지원
  - (첨단기술) R&D 예타폐지를 통해 첨단기술개발 가속화('25.4.9), 초격차 기술확보 위해 '소부장 미래혁신기반구축사업' 발족('25.4.11)
    - \* 4년간<sup>25-28</sup> AI, 첨단바이오, 미래소재 등 3개 분야 6개 과제에 총 600억원 지원
  - (주요 산업) 자동차, 반도체, 조선 등 주요 품목 지원 대책 발표
    - \* 자동차, 반도체, AI, 바이오, 이차전지, 철강, 조선, 석유화학 등
    - (자동차)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 발표('25.4.9)
      - \* ①긴급 유동성 3조원 신규 지원, ②전기차 보조금 연장(상반기→ 연말), ③수출바우처 1천억원 이상 추가, 단기 수출보험료 할인 등 제도 연장, ④투자 인센티브 확충
    - (조선) K-조선 산업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에 2,600억원 지원(역대 최대)
      - \* ①친환경 선박(1,700억원), ②선박 건조 공정 디지털 전환(700억원), ③자율운항선박(200억원)
    - (기타) 반도체 생태계 재정 지원, AI기본법 시행령 제정 등
- [대체 시장] 수출다변화를 통한 수출 기반 유지, 금융지원 등 강화
  - \*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(관계부처 합동, '25.4.9)
  - (시장개척 지원강화) 중남미, 중동, 아프리카 등 포함 지원 확대
    - \* 해외박람회 개최 확대(유럽+아시아→ 중남미), 해외 전시회 내 통합한국관 운영 확대
  - (물류지원) 해외거점물류센터 신속 확보\*, 중기 전용선복 지원사업 확대\*\*
    - \*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, 인도·중남미지역 통합물류센터 신속 확보
    - \*\* (기존) 미주·구주·동남아 항로→ (확대) 중동·중남미 등 항로 수요조사 후 지원
  - (FTA 확대) 주요국과의 협정 논의 진행 및 기 타결된 협정 조기발효
    - \* (UAE) 관세 5% 10년 내 철폐, (에콰도르) 승용차, 화물차 관세 최대 10%, 15년내 철폐 등
  - (금융지원 강화) 수출바우처 물류비 한도 상향, 신시장 금융지원 강화

◆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중에 수출 다변화 노력이 필요

## II. 유망시장 진출 전략

### □ 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3개 테마별 주요시장

테마	시장	시장-정책 동향	유망 품목분야
[1] 美中 대체수요 유망시장	① 미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관세정책, 제조업 육성</li> <li>▶ 중국 견제, 무역수지 개선 노력</li> <li>▶ 한류 확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△소비재, △조선, △자동차 부품,</li> <li>△발전·전력, △AI·자동화,</li> <li>△바이오 등</li> </ul>
	② 중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주요국*의 對中 견제</li> <li>▶ 내수소비 활성화</li> <li>▶ 기술자립 추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△친환경산업 관련 분야,</li> <li>△헬스케어(의료기기 등),</li> <li>△소재·부품·장비, △소비재 등</li> </ul>
[2] 글로벌 제조업 재편에 따른 유망시장	① 아세안5 (베트남·인니·태국· 필리핀·말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글로벌 공급망 재편 수혜, FDI 급증 및 산업 고도화</li> <li>▶ 젊은 인구구조, 중산층 성장</li> <li>▶ 디지털 경제 급성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△반도체·전자부품, △가전,</li> <li>△자동화 설비 및 로봇,</li> <li>△EV배터리부품, △의료기기 및</li> <li>장비, △신재생에너지 설비,</li> <li>△화장품 제조설비 등</li> </ul>
	② 인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빠른 경제성장</li> <li>▶ 투자유치 확대</li> <li>▶ 제조업 육성</li> <li>▶ 보호무역 강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△전자부품, △설비·자본재,</li> <li>△자동차 부품, △특수 화학물,</li> <li>△건설장비, △전력기자재,</li> <li>△식품·화장품 등</li> </ul>
	③ 멕시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美통상조치 직접 영향 ↑</li> <li>▶ 북미 공급망 핵심 역할</li> <li>▶ 제조업 육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△자동차·부품, 기계·장비,</li> <li>△전력인프라, △전기차배터리,</li> <li>△의료바이오, △소비재 등</li> </ul>
	④ 헝가리·폴란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제조업 육성</li> <li>▶ 이차전지 제조 기지화</li> <li>▶ 중국 투자 대거 유입</li> <li>▶ 인프라 확대 추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△이차전지, △친환경 에너지</li> <li>관련 품목, △한류 소비재 등</li> </ul>
[3] 산업화 고도화 수요 유망시장	① UAE·이집트· 모로코·사우디 (중동 산업화 국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탈석유, 도시화, 제조업 육성</li> <li>▶ 물류 허브</li> <li>▶ 젊은 인구 구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△자동차부품, △전력 기자재,</li> <li>△전기차·충전인프라, △물류,</li> <li>△의약품·의료기기, △의류·섬유,</li> <li>△소비재 등</li> </ul>
	② 독일·이탈리아· 벨기에·프랑스 (제조업 혁신 파트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제조업 경쟁력 부진 중국산 유입</li> <li>▶ 생산 비용 절감 및 생산성 제고 노력 등 혁신수요</li> <li>▶ ESG 정책의 '통상 규범화'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△생산 혁신 관련 품목,</li> <li>△첨단기술 협업 관련 품목,</li> <li>△인프라 관련 품목, △수소 발전,</li> <li>△그린 모빌리티 등</li> </ul>

# 1 美中 대체수요 유망시장

## 선정 배경

- **유망시장 : 미국, 중국**
- **현지 정책 · 시장 여건**
  - **(공급망) 산업 생태계 자립을 위한 본격적인 공급망 내재화 추진**
    - (미국) 핵심 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, 자국 내 공급망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 역량 강화 정책 도입
      - \* 미국산 우선구매 정책,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등을 통해 자국산 수요를 높이고, 기업의 미국 내 생산거점 설립을 유도
    - (중국) 미국의 견제 강화 속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소재·부품·장비 등 주요 산업의 국산화 모색
      - \* 산업 국산화를 위한 대규모 지원금 편성, 전문 인력 양성, 강소기업 육성 등
  - **(첨단·혁신)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기술 패권 확보에 주력**
    - (미국) AI·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
    - (중국) 정부 주도로 신흥·미래산업 위주의 산업 고도화에 박차
      - \* '신질생산력' 강화를 위한 신흥·미래산업 육성 정책: 신에너지, 차세대 정보기술 등 8대 신흥산업과 메타버스, 생성형 인공지능 등 9대 미래산업 육성
- **우리기업 경쟁 여건**
  - **(경쟁력) 중국산 견제에 따른 틈새 수요를 품질·가격 경쟁력으로 흡수**
    - (미국) 높은 신뢰도와 중국산 배제 기조가 맞물려 한국산 입지 강화 전망
    - (중국)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고품질·기술 기반 품목의 한국산 수요 확대 중
  - **(시장) 방대한 소비자 기반과 시장 인지도 활용이 용이한 상황**
    - (미국) 한류에 힘입어 가성비·제품력을 모두 확보한 한국산 인지도 강화
    - (중국) 세계 최대 인구 보유국으로 계층별 다양한 소비 트렌드 확산 지속
      - \* 新소비주도세력세대 중심으로 합리적·가성비 소비, YOLO 소비, 고급 소비 등이 확대

◆ (미국) 對中 견제 속 주요 공급망유망산업 협력 수요 증가 전망  
(중국) 적극적인 산업 육성과 폭 넓은 소비시장 내 기회 확대 추세

**1 미국** 對中고율 관세 대안, 무역균형 속 협력 확대 수요 공략

□ 시장동향

- (제조업 육성) 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제조업 부흥 및 역량 강화
  - 관세와 수출통제 정책 등을 통해 미국 및 해외기업의 제조공장 미국 내 이전·설립 장려, 자국 내 기술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
  - \* 반도체, 자동차, 철강 등 핵심산업의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연관 정책 발표
  - 미국산 우선구매 Buy American 정책,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제조업 기반 확대 및 수요 증가 견인, 외국산 수입품 의존도 축소 추진
- (무역수지 개선) 외국산 수입품 대상 관세 및 수출입 제한 조치 강화
  - 국가별·품목별 관세 부과를 통한 미국 시장 내 수입품 수요 축소 유도

<美 관세 조치 현황(25.5월 기준)>

종류	구분	대상국가	관세율
국가별	펜타닐 관세	중국, 캐나다, 멕시코	· 중국: 20% · 캐나다/멕시코*: 25% <sup>USMCA 제외</sup>
	301조 관세	중국	· 품목별 7.5~100%
	상호관세	캐나다, 멕시코 제외 모든 국가	· 중국: 125%(~5.13.) → 10%(~8.11.) → 34%(8.12.~) · 그 외 국가: 10%(~7.8.)
품목별	철강·알루미늄·파생상품	모든 국가	· 25%
	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	모든 국가	· 25% * USMCA 준수 자동차: 非미국산에만 과세 * USMCA 준수 자동차 부품: 예외
	반도체	모든 국가	관세 부과 예고(232조 조사)

\*국가별 관세는 수시로 변동 가능성이 있음.

- 중국發 소액소포 대상 면세 혜택 폐지, 소포당 수수료 부과
- \* (종가세) 물품 가치 대비 54%(5.14~), (종량세) 100달러/1건(5월부~)
- \* '24년 미국 내 전체 면세 소포(약 14억 개) 중 60%가 중국發로 집계

- **(한류 확산) K콘텐츠 확산, SNS를 통한 한국산 제품 인기 지속**
  - 특히 미국 내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가성비와 제품력을 모두 보유한 한국산 화장품 및 식품 인기 확대
  - \* '23-'24년 대미 수출액: 화장품<sup>HS 3304</sup> 전년비 51.3%↑(10억→ 15.5억 달러),  
기호식품<sup>MTI 015</sup> 전년비 13.2%↑(2.0→ 2.3억 달러)

## □ 유망분야

- **(신규·유망산업) 가격 격차 축소, 높은 신뢰도로 협력 환경 개선**
  - (소비재) 지속되는 한류 인기와 對中 고율관세로 한국산 입지 강화
    - \* '24년 對美(한국 소비재 수출 1위국) 소비재 수출 409억 달러로 전년대비 9.6% 증가
  - (조선) 미국 내 전문 인력 부족, 인프라 노후 등으로 협력 가능성 증가
    - \* 트럼프 대통령, 선박 수출 및 MRO 분야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시사('24.11.7.)
- **(제조업) 한국산 수요 성장세에 힘입은 시장 점유율 확대 전망**
  - (자동차 부품) 미국 내 중국산 배제 기조로 한국산 수요 증가 기대

현장의 목소리	
☞	<b>바이어 A社(완성차/미국)</b> 대부분의 품목에서 중국 공급망을 제외하고 있음. 향후 미국 내 생산기반을 갖춘 기업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
☞	<b>바이어 B社(차부품/미국)</b> 세밀한 가공·품질이 필요한 차량 부품은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, 동 품목의 한국 외 대체 공급선 발굴 의사 없음.
☞	<b>바이어 D社(차부품/미국)</b> 관세로 중국산 수입 비용이 증가했으며, 업계 내 전반적인 중국산 배제 분위기로 인해 한국 공급업체로의 전환이 활발

- (발전·전력) 데이터센터發 전력 부족, 미국내 전력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인해 발전기, 퓨즈 등 관련 기자재 수요 급증
  - \* '22~'24년 미국의 변압기, 고압케이블 시장에서 한국 점유율 급성장(1~3위)
  - \* 동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높은 고압케이블(19.6%)은 관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
- **(첨단산업) 관련 투자 확대, 규제 완화로 한국산 진입 여건 개선**
  - (AI·자동화) 기술 혁신과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둔 대규모 투자 확대 추세
    - \* '23년 미국 정부민간 투자액 874억 1,000만 달러, 전 세계 AI 투자액(1,419억 달러)의 62%
    - \* '25년 1월 日 소프트뱅크, 美 오픈AI, 오라클 합작 투자로 최소 5천억 달러 투자 발표

- (바이오) 약가인하 정책과 중국 의존도 감소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 
· 제네릭, 위탁생산(CDMO) 수요 확대 예상
- \* 트럼프 대통령, △바이오시밀러 및 제네릭 사용 확대, △의약품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약가인하 행정명령 서명(25.4.15.)

**현장의 목소리**

☞ **바이어 A社(의약품/미국)** 미국의 약가인하 및 바이오시밀러·제네릭 확대 정책 등 한국산 제품 수요 증가 가능성. FDA 승인 등 현지 행정절차 속도 가속화 전망

## □ 우리기업 경쟁여건

- (제조업 경쟁력) 미국 내 밸류체인이 부족한 중간재 및 설비 등의 분야에서 고관세를 부여받은 중국산 대비 우리 경쟁 여건 양호 전망
  - \* '24년도 對美 수출액(1277.9억 달러)의 51.2%(654억 달러)가 중간재로 집계(한국무역협회)
  - \* 트럼프 1기부터 지속된 301조로 미국 시장 내 중국 비중 감소: ('17) 22% → ('23) 14%  
반면 미국 시장 내 한국 비중은 증가: ('17) 3.1% → ('23) 14% (자료원: KIEP)
- (제3국 경쟁) 관세 조치를 감안하더라도 인도, 아세안 등 가격 경쟁력이 높은 국가들과의 시장 경쟁은 여전
- 단, 기술이 결합된 프리미엄 제품의 경우 한국산에 대한 높은 시장 수요가 기대됨

**현장의 목소리**

☞ **바이어 C社(IC제조/미국)** 저가 소비재용 범용 칩 시장에서는 말레이시아, 필리핀, 인도 등의 제품들이 함께 검토되고 있으나, 고사양, 고신뢰도 부분에서 한국산 대체 수요가 높은 편

☞ **바이어 D社(의료기기/미국)** 미국 내 중소 병원, 수술센터들은 가격경쟁력이 높은 인도산 제품을 다수 취급 중이나, 스마트관절 등 고급형 기기는 한국산의 시장 선점 가능성 높음.

- (수요위축) 관세 부과로 수입품 수요가 위축될 우려도 존재

**현장의 목소리**

☞ **바이어 E社(방송장비 유통/미국)** 수입자 마진율이 낮은 경우 소비자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며, 필수재가 아닌 경우 가격대 상승 속에서 전반적인 시장 수요가 위축될 것

## 2 중국 대미 관세율 격차, 공급망 다변화 기회를 활용한 대체 수요 공략

### □ 최근 시장 동향

- **(경제성장)** '25년 4.0%\*(IMF, '25.4월) 성장 전망, 긍정요인(산업 고도화, 적극적 경기부양), 부정요인(내수 소비 회복 미진, 對美 통상환경 리스크) 혼재  
\* 중국 경제성장률(%) : 3.1('22) → 5.4('23) → 5.0%('24) → **4.0%('25)** → 4.0%('26) (IMF, '25.4월)
- **(통상환경)** 주요국의 對中 견제\*에 따른 ①중국 수출 감소, ②중국 경제 성장동력 약화 ③우회수출 차단에 따른 산업망·공급망 불안정  
\* (미국) 대중 고관세 부과, (동남아 인도) 中 공급과잉 밀어내기 수출로부터 자국 산업 보호 등
- **(내수소비)** 경기둔화,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내수 소비 회복 부진 하나, 온라인 유통채널 다각화 및 新제품·新브랜드 위주 新수요 발생  
\* 중국정부의 내수부양 힘입어 '25.1Q 경제성장률 5.4%, 연간 목표치인 5% 상회
- **(기술자립)** 미국의 기술 견제 속에서도 생산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주도 新기술·新산업(신질생산력)\* 육성, 첨단·제조업 위주 산업고도화 실현

#### <중국 산업정책 핵심 '신질생산력\*' 주요 내용>

분류	내용
산업망·공급망 업그레이드	- 부족한 분야를 보완하고 우위에 있는 분야는 보강하여 새로운 분야를 개척 - 중소기업의 전문성·정밀화·특수성·혁신성 발전 도모, 브랜드 가치 제고
신흥산업·미래산업 육성	- (8대 신흥산업) 차세대 정보기술, 신에너지, 신소재, 첨단장비, 신재생 에너지차, 녹색환경, 민간 항공, 선박 및 해양공학 장비 - (9대 미래산업) 메타버스, 뇌-기계 인터페이스(BMI), 양자정보, 휴머노이드 로봇, 생성형 인공지능, 바이오 제조, 첨단 디스플레이, 미래 네트워크, 신형 에너지 저장
디지털 경제 육성	- 디지털의 산업화, 산업의 디지털화, 디지털 기술의 실물융합 강조 - 빅데이터·인공지능의 응용기술을 발전시켜 인공지능(AI)+로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 육성 (딥시크 등 중국 자국내 인공지능 기업 육성) - 디지털경제 기업은 신질생산력 형성을 가속하는 실행주체이자 핵심역량

\* 신질생산력(新質生產力) : 중국산업정책 핵심 키워드로 첨단기술, 고효율, 고품질 산업 목표

□ **유망분야 · 품목**

- **(친환경산업)** 친환경·탄소중립은 중국 **수소 산업 분야**의 주요 과제로 우리 기업의 친환경·첨단기술 기반 수소·조선기자재 등 유망

<친환경산업 대중 수출 유망품목>

품목	내용
수소 에너지	- 中 에너지 시스템과 탄소중립 달성에서 수소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35년까지를 목표로 그린수소 비중 확대 - 수소 충전소 통합장비, 압축기, 수소 충전장비, 수소 저장시설 등
친환경 조선기자재	- 한국의 고부가가치·친환경·첨단기술 조선 기자재 및 장비 분야는 유럽산보다 경쟁력이 높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우위 - 최근 중국 조선업계 바이어들은 전문 전시회·상담회에 참가하여 우수 조선기자재 발굴 및 기술 교류 확대 희망, 전시회 등 적극 참여 필요
수처리 설비	- 중국 수처리 산업은 단순한 수질오염 통제에서 체계적인 환경 생태 관리와 수자원 관리로 변화 중 - 오수·오염물 배출 최소화, 오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한 오수 처리장비 업그레이드·스마트화 작업관련 품목 수출 유망

- **(헬스케어)** 중국 고령사회\* 가속화로 헬스케어가 블루오션으로 부상, 실버경제 주력(1960년대생) 소비 트렌드 포착 및 타깃 마케팅 필요  
\* 중국, 2035년 초고령화(65세 인구가 20% 초과)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

<헬스케어 대중 수출 유망품목>

품목	내용
의료기기	- 고령화인구 및 만성질환 환자 증가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 - 중국 기술력 한계로 고가 의료기기 제품의 대외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편, 고기능성 의료기기 수출 및 기술 협력 프로젝트 참여 유망
非수술적 미용의료	- 중국 내 히알루론산 필러, 보톡스 주사 등에 대한 선호도 상승 - 최근 미백·피부 재생 효과로 알려진 '콜라겐'도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 -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되, 중국 유통을 위해 정식 인증 취득 절차 필요
건강기능 식품	- 건강관리 열풍, 소비수준 상승에 따라 기능성 식품 시장 성장 추세 - 제품의 제형과 효과 외에 포장 디자인 및 라벨링 또한 중요

- **(소재·부품·장비)**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 약화세, 중국의 산업 국산화 정책 활용하여 첨단 소재·부품·장비 위주 수출 유망
  - **(산업용 로봇부품)** 중국 산업용 로봇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나, 감속기·서보모터·드라이버 등 높은 기술력 요구 부품은 70% 이상 수입에 의존
  - **(베어링)** 중국 제조업이 고급화 단계로 진입하며 고품질 베어링 수요 증가, 한국 베어링은 중국 로컬 제품보다 품질 및 안정성이 높아 경쟁력 보유
- **(소비재)** 내수 소비 부진에도 불구하고, 新 소비주도 세대(新三代\*)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소비 수요 유지
  - \* ①**Z세대**(90년대~00년대 생, 합리적·가성비 소비), ②**밀레니엄 마더**(올로, 독립, 자녀교육 등), ③**新노년층**(안정적·프리미엄 소비 추구)
  - 디지털 피트니스 기구(가정용사이클, 물리치료 마사지), 아웃도어(요가 바지, 스포츠 액세서리, 캠핑용품), 반려동물용품(펫케어, 펫의류) 등 유망
  - 계층별 소비 성향을 정조준하여 라이브커머스, 테마형 편집숍, 창고형 마트 등 신유통채널을 폭넓게 활용하는 전략 필요

현장의 목소리
<p>☞ <b>바이어 L社(이동로봇 및 관련 솔루션/중국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로봇 용접 불량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파트너 물색</li> <li>- 한국산은 레이저용접로봇, 이동로봇, 협동로봇 등에서 높은 기술력 보유</li> <li>- 정밀 레이저 가공에 필요한 한국산 센서, 레이저헤드 등 수입 수요 증가</li> </ul>
<p>☞ <b>바이어 C社(국영조선소/중국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국도 국제해사기구 규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필요</li> <li>- 한국은 LNG 운반선, 수소 운반선, 암모니아 추진선 등에 들어가는 선박 엔진과 부품 기술 선두 주자로 한국산에 대한 수요 다대</li> </ul>
<p>☞ <b>바이어 S社(재활 의료기기/중국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국은 고성능 의료장비, 핵심부품에서 여전히 대외의존도가 높음</li> <li>- 한국산은 가격 대비 제품 신뢰도 측면에서 우수성 보유</li> <li>- 반조립 상태로 수입하여 현지 조립생산을 거치면 의료기기 인증 장벽을 완화할 수 있음. 현지 병원, 요양원, 의사협회 등과 협력 확대 필요</li> </ul>
<p>☞ <b>바이어 T社(의류/중국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의 기능성 직물은 높은 방수, 오염 및 정전기 방지, 항균 등 중국산과 차별화되는 우수한 품질을 갖추고 있음</li> <li>- 중국 의류시장 블루오션인 기능성, 친환경, 스마트 의류 등은 현지 기업과 협력을 통해 시장 진입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</li> </ul>

## 2 글로벌 제조업 재편에 따른 유망시장

### 선정 배경

□ 유망시장 : 아세안5<sup>베트남·인도·태국·필리핀·말련</sup>, 인도, 멕시코, 헝가리·폴란드

#### □ 현지 정책·시장 여건

○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과 지역 허브화

- 아세안5(전자·반도체), 인도(중간재 생산), 멕시코(북미 생산기지), 헝가리·폴란드(에너지·전기차) 등 지역별 특화된 공급망 생태계 형성
- 인도 생산연계인센티브<sup>PLI</sup>, 멕시코 '플랜 멕시코', 헝가리 투자청 세제혜택 등 산업 인센티브를 확대 및 제조업 육성 강화 중

○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기술 융합 가속화

- 베트남·폴란드는 대체에너지 확충을 추진, 인도는 반도체·디스플레이 제조에 100억 달러 투자 등 친환경·첨단산업 육성이 가속화
- 말련 AI·클라우드 인프라 투자(엔비디아, MS, 구글 등), 헝가리 배터리·전기차 공장 투자(CATL 73억 유로, BYD 40억 유로) 등 신산업 생태계 확장 중

#### □ 우리기업 경쟁 여건

○ 중국과의 경쟁 구도 변화

- 중국의 對아세안 FDI '19년 90억 달러 → '23년 176억 달러로 급증, 현지 생산기지 확장을 통한 시장 선점 가속화 추세
- '21~'24년 중국의 對아세안5 수출 성장률(6.0%)이 한국(0.1%)을 크게 상회, 특히 철강과 플라스틱 등 핵심 소재의 한국 경쟁력이 약화

○ 가치사슬 재편 참여 기회

- 공급망 다변화 추세 속 우리기업의 기술력·품질 우위를 활용, 핵심 부품·소재 공급자로서의 전략적 포지셔닝 가능
- IPEF, CHIP4 등 다자간 경제안보 협력체제와 RCEP, 한-인도 CEPA 등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장 접근성 제고 기회

◆ (아세안5) 글로벌 공급망 재편 최대 수혜지, 주력 수출 대상 지역

◆ (인도) 제조업 생산기지화, 전자부품 중간재 수출 유망

◆ (멕시코) 북미 공급망 허브 유지, 전력인프라·바이오 기회 확대

◆ (헝가리·폴란드) EU 에너지 전환으로 이차전지·ESS 등 친환경 분야 성장

**1] 아세안5** 베트남·인니·태국·필리핀·말련

**대체시장을 넘어 차세대 주력시장으로**

□ **시장·경제 환경 분석(PEST)**

<b>P</b> 정치	미중 경쟁 속 실용적 중립 외교와 경제협력 확대	<b>S</b> 사회	젊은 인구구조와 중산층 성장이 내수시장 확대를 주도
<b>E</b> 경제	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자로 FDI 급증 및 산업 고도화	<b>T</b> 기술	디지털 경제 급성장과 국별 특화 기술 발전 가속화

○ **(정치)** 미중 경쟁 속 실용적 중립 외교와 경제협력 확대

- 아세안5 국가들은 미중 간 경쟁 속에서도 실용적 중립 외교 노선을 추구
  - \* '24년 아세안5의 대외교역액(억 달러) : 對중국 6,127(1위), 對미국 3,427(2위)
- 베트남은 최고 수준의 외교 단계인 “포괄적 전략 동반자” 관계를 최근 4년 사이 8개국과 추가 체결하며 국제 외교관계를 강화
  - \*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 대상국(체결 연도) : 중국('08), 러시아('12), 인도('16), 한국('22), 미국·일본('23), 호주·태국·말련('24), 뉴질랜드·인니('25)

○ **(경제)**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자로 FDI 급증 및 산업 고도화

- 중국 생산기지 대체지로 부상, 외국인직접투자액(FDI) 확대
  - \* 아세안5 FDI(억 달러) : '13년 588 → '18년 653 → '23년 665
- 기존 단순 저임금 제조업에서 전자, 반도체,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 및 신산업 분야로 투자 다변화 및 산업 역량 강화 도모
  - \* (말) 자국기업 GVC 편입 및 산업 고도화 중심의 '신산업마스터플랜(NIMP) 2030' 정책 추진, 제조업 부가가치 '18년 49% → '30년 65%로 확대 목표
  - \* (태) 전자자동차 공급망 확대, GVC 참여 지수 '20년 0.93 → '25년 1.03<sup>(6)</sup> (크룽스리 리서치)
  - \* (필) 법인세 감면(25 → 20%), 부가세 조기환급(180 → 90일), 전기요금 공제 등 투자지원 확대

○ **(사회)** 젊은 인구구조와 중산층 성장이 내수시장 확대를 주도

- 생산가능 인구<sup>20~54세</sup>가 50.5%인 젊은 인구구조로 풍부한 노동·소비력 보유
  - \* 아세안 고소득 및 상위 중산층 가구수, '19년 3,000만 가구에서 '30년 5,700만 가구로 확대 전망(동아시아경제연구소, '24.10월)

- 친환경·지속가능제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,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프리미엄 시장 확대 추세

\* 도시화율 56%, Z세대·밀레니얼 중심의 소비 패턴 고도화와 디지털 소비 확대가 주요 동인

○ (기술) 디지털 경제 급성장과 국별 특화 기술 발전 가속화

- 16~24세 인구 중 99.6%가 SNS를 사용하며, 하루의 많은 시간을 소셜 미디어에 할애하는 세계 최고 수준 SNS 소비 지역

\* 1일 SNS 사용시간(시간:분) : 필 3:33, 인니 3:08, 태 2:29, 말련 2:47, 베 2:17 한국 1:13

- 베트남·말레이시아는 스마트 제조·반도체·데이터센터, 인도네시아·필리핀은 핀테크·디지털 결제 시스템 산업 발전 추진

< 국별 주요 기술 발전 동향 >

국가	내용
베트남	· AI·반도체 인력 10만 명 양성 목표 · 산업 R&D 프로젝트 초기 투자 비용 최대 50% 지원
인도네시아	· '23년 디지털 결제 거래액 3,130억 달러 기록, 동남아 최대 규모
태국	· Thailand 4.0 정책으로 최첨단 솔루션 공공 및 산업에 도입 추진 · '23~'30년 자동화 산업 연평균성장률 5.8%, '30년 시장 규모 6.88억 달러 전망
필리핀	· '24년 모바일 핀테크 앱 보급률 63% 디지털 결제 시장 '33년까지 연평균 13.8% 성장 전망 ·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2022에 따라 전자정부(eGov PH) 구축 추진
말레이시아	· Industry4WRD 정책과 신산업마스터플랜 2030으로 자국 기업 스마트팩토리 전환 지원, 국가인공지능사무국 설립 및 1천만 링깃(232만 달러) 지원

□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는 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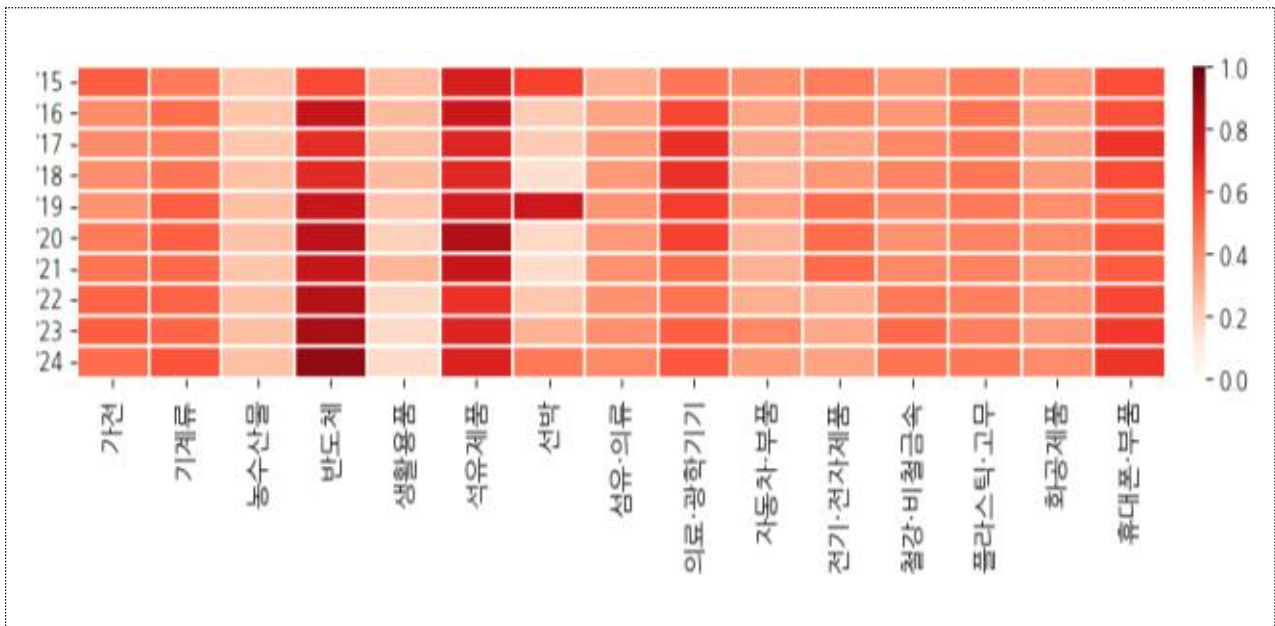
- 중국의 對아세안5 수출 확장세(4개년 6.0%)는 한국(0.1%)보다 높은\* 수준

\* 중국의 철강·플라스틱 확장세는 9.2% 및 6.7%, 한국은 △5.7% 및 △1.9% 기록

< '21~'24년 국별 수입 증가율(CAGR) >

구분	아세안5					
	베트남	인도네시아	태국	말레이시아	필리핀	
對세계 수입	4.2%	3.5%	4.5%	3.6%	6.0%	3.8%
對중 수입	6.0%	7.0%	6.6%	4.8%	4.1%	6.8%
對한 수입	0.1%	△0.1%	△0.2%	△1.7%	0.1%	3.0%

- 중국은 제조업 투자 등 아세안 현지에서 생산 거점 마련을 적극 추진 중이며, 이는 곧 중국의 對아세안 수출 확대와도 직결
  - \* 아세안 내 중국 FDI, '19년 90억 달러에서 '23년 176억 달러로 연평균 18% 증가
  - \* 베트남·인나·태국 등 제조업 주요국 중심으로 중국 수출이 큰 폭(4개년 평균 6.3%)으로 증가
- 최대 수출 경쟁격전지는 베트남으로, 한국과 중국의 투자 분야가 중복(휴대폰, 반도체, 가전 등)되며 양국의 베트남 시장 내 경쟁이 격화
  - \* 한국·삼성(휴대폰, 전자제품), LG(가전, 디스플레이), 하나마이크론(반도체), 중국·샤오미(휴대폰), 징둥팡(디스플레이), TCL(가전) 등 베트남 내 공장 운영



< 연도별 한중 수출경합도 변화 >

\* 주: 색이 진할수록 한중 경쟁 정도가 높음      \*\* 자료 : GTA 통계 재구성

-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한·중 간의 경쟁 격화 가능 품목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및 대응 필요
  - (참고)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베트남에서는 과거 트럼프 1기('17~'21년) 당시 석유제품, 전기·전자제품, 철강·비철금속의 한·중 경쟁이 심화
  - 주로 가격에 의존하는 중국 제품과 달리, 현지 맞춤형 제품·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

## □ 유망분야 및 품목

- **(반도체·전자부품)**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시장 급성장, 스마트폰용 MLCC<sup>적층세라믹콘덴서</sup>, 디스플레이 패널, 이미지 센서, 차량용 센서, 반도체 제조장비(증착, 검사장비) 등 유망

\* (베) '24년 전자부품 수입액 1,070억 달러, 전년대비 22% 증가

\* (말) 반도체 장비 시장 연평균 15.3% 성장 중, 글로벌 후공정(OSAT) 중심지로서의 입지 강화(후공정 분야 전 세계 시장 점유율 약 13%를 차지)

### 현장의 목소리

☞ **현지 진출 미국기업 I社(반도체/베트남)** I社는 베트남의 반도체 생태계 발전에 전념하고 있으며, 베트남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 중

- **(가전)** 소비패턴 고도화로 젊은 소비층으로 인해 프리미엄 가전이 인기, 헬스케어 가전, 스마트 가전, 친환경 가전 등 유망

\* '23년 아세안 프리미엄 가전 시장 규모 120억 달러, 특히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는 15억 달러로 2년간 2배 증가

- **(자동화설비·로봇)** 인건비 상승과 제조 고도화로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 설비 수요 증가, 산업용 로봇 시장 연평균 19.8% 성장

- 물류·조립 로봇, 컨베이어 시스템, 자동검사·포장기, 생산관리시스템 등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수요 증가

\* (베) 현대로보틱스 1.2억 달러 산업용 로봇 공급, (말) 한화테크윈 1.5억 달러 자동화 설비 공급

### 현장의 목소리

☞ **바이어 E社(산업용 로봇/베트남)** 베트남에서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여러 해외 기업들이 베트남 제조공장에 투자진출 중, 자동화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가까운 미래에 2~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

- **(EV배터리·부품)** 인니·태국 내 EV 배터리 및 부품 현지 생산 수요 증가, 배터리 셀·모듈, 전력변환장치, 충전 인프라 등 유망

\* (인) 전기차 배터리 부품 시장 '25년까지 4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

\* (필) 한-필 FTA발효('24.12월), 한국산 자동차 부품 관세 철폐로 수출 증가 기대

- **(의료기기·장비) 진단기기, 의료용 소모품, 병원 장비**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, 인니, 필리핀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의 성장 가능성\* 높음

- \* 아세안 의료기기 시장 '23년 83억 달러, 연평균 11.2% 성장
- \* (태) 아세안 의료 허브(병원 1,421개, 심장센터 38개, 약국 22,459개, 의료진 24만 명 이상)로서 국민건강검진 표준화·유전자 치료·원격의료 등에 관심
- \* (말) 의료기기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지정,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및 밸류체인 통합 지원

#### 현장의 목소리

👉 **현지기관(제약/태국)** 태국은 고령화로 인해 의약품 수요가 급증, 태국 제약 시장은 매년 5~15%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

- **(신재생에너지 설비) 탄소배출 규제 강화와 국별 신재생에너지 목표 확대**로 태양광 패널, 인버터, 에너지저장장치 등 관련 부품·설비 유망

- \* (베) 재생에너지 보급 비율 '30년까지 28~36% 목표, 예상 투자 비용 연간 272억 달러
- \* (인) '40년까지 추가로 확보할 103GW 규모의 전력 중 75GW는 태양광과 풍력, 지열, 바이오매스 등으로 생산 추진
- \* (태) 에너지 자립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37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30%를 재생에너지로 확대코자 하며, 에너지 집약도(EI)를 30% 감소하고자 함
- \* (필) 한화큐셀, OCI 등과 25억 달러 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 중
- \* (말) '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1%로 확대하는 목표 설정, 한화큐셀(태양광) 및 LS일렉트릭(ESS) 등 관련 사업 확대 중

- **(화장품 제조설비) K-뷰티 인기**에 힘입어 현지 화장품 제조업이 성장, 생산설비(유화기, 믹서 등), 품질 테스트 장비 등에 대한 수요 증가

- \* 특히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한국형 생산설비 도입 활발, OEM/ODM 사업 확대로 설비 수요 증가 기대
- \* (인) 현지 인증을 획득한 한국계 화장품 OEM·ODM 업체 제품의 수요가 증가 추세

## 2 인도 美 관세 불확실성 속 글로벌 생산기지로 떠오르는 인도

### □ 최근 시장 동향

- **(경제성장)**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 5대 경제 인도, '14년 이후 매년 7%대 고성장 중으로 '23년 8.2%, '24년 7.0%, '25년 6.5%<sup>(e)</sup> 성장 중  
\* 인도, '27년 일본·독일 제치고 3대 경제대국 등극 전망 (IMF, '24.7)
- **(교역)** 2024/25 회계연도\* 교역규모 약 1.1조 달러(수출 4,374억 달러, 수입 7,202억 달러), 산업 구조상 만성 무역수지\*\* 적자국  
\* 인도 회계연도 당해 4월부터 차년도 3월까지, (예시) 24/25 회계연도 : '24.4월~'25.3월  
\*\* 무역수지(억 달러) : -2,630('22/23) → -2,411('23/24) → -2,828('24/25) / 원유, 석탄, 가스 등 에너지원 수입이 인도 대외무역적자 주요 원인
- **(투자유치)** '24.4~12월, 외국인투자유입(FDI) 406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7% 증가,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내수 잠재력 바탕 투자유치 지속  
\* 24/25 회계연도, 인도 생산 아이폰 약 2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0% 증가,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라 애플은 2~3년 내 쉐 아이폰의 25% 인도서 생산 목표 (현 20%)

< 최근 4개년 인도의 투자유치 현황(단위 : 백만 달러, %) >

2021/22 ('21.4월~'22.3월)		2022/23 ('22.4월~'23.3월)		2023/2024 ('23.4월~'24.3월)		2024/2025 ('24.4월~'24.12월)	
금액	증감율	금액	증감율	금액	증감율	금액	증감율 (전년동기비)
58,773	△1.0	46,034	△21.7	44,423	△3.50	40,672	27.0

\* 자료 : 인도산업무역진흥청

< 글로벌기업이 주목하는 인도 시장의 가치 >

분류	내용
높은 경제성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G20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 중</li> <li>· G20 국가 중 '22년부터 GDP 성장률 1위, '29년까지 1위 유지 전망(IMF)</li> <li>· 지속적 성장으로 신흥경제권 안착</li> </ul>
거대인구 젊은인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인구 14.4억 명을 보유한 세계 1위 인구 대국</li> <li>· 평균연령 28.4세, 65%가 35세 미만의 젊은 인구</li> <li>* 중국(평균 39세), 미국(평균 38세) 대비 훨씬 젊은 인구</li> </ul>
국제사회 위상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글로벌 사우스 대변, 국제사회 해결사 역할 자처</li> <li>· 공급망 재편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 협력국으로 부상</li> <li>· 미국과 중국은 인도를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포섭하려는 움직임 강화</li> </ul>
거대 내수시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구매력 확대로 소비 수요도 꾸준히 증가 (세계 4위 소매시장)</li> <li>· 필수소비재, 경기변동에 영향없이 지속 성장</li> <li>· 인도 스타트업 14만 개사, 유니콘 118개 ('25.4월)</li> </ul>

□ **정책 동향 - 제조업 육성**

- **(생산연계인센티브)** 모디 총리, '20년 생산연계인센티브\* 제도 도입, 글로벌 제조기업의 對인도 생산시설 건설 및 현지 생산 유도
  - \* PLI(Product-Linked Incentive) : 매출증가액·투자액 등 달성 시 4~6년간 수출액 혹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 인센티브로 지급 (총 260억 달러 규모)
- **(전자부품)** 인도 전자·정보기술부, '25.3월, 약 26.8억 달러 규모 전자 부품제조계획\* 발표, 수입의존도 높은 PCB, 카메라모듈 등에 인센티브
  - \* ECMS(Electronic Components Manufacturing Scheme)

< 전자부품제조계획(ECMS) 정책 개요 >

분류	내용
도입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조립 산업 급속 성장중이나, 핵심부품 수입에 의존</li> <li>· 디스플레이, 카메라모듈, PCB 등 부품의 자국 생산 유도</li> </ul>
중점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Sub-Assembly (디스플레이 모듈, 카메라모듈 등)</li> <li>· Bare Component (PCB, 리튬이온셀, 전기기계제품 등)</li> <li>· Capital equipment (전자부품 생산위한 기계설비 등 자본재)</li> </ul>
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매출연계 인센티브 (Sub-Assembly, Bare Component 등 부품)</li> <li>· 자본지출 연계 인센티브 (기계설비 등 자본재)</li> <li>· 하이브리드(매출연계+자본지출) 인센티브 (HDI PCB* 등)</li> </ul> <p>* HDI(High Density Interconnection) PCB : 정밀 전자부품 실장 PCB</p>

\* 자료 : 인도 전자·정보기술부

- **(반도체·디스플레이)** 인도 전자·정보기술부, '21.12월, 약 100억 달러 규모 'Semicon India' 발표, 반도체·디스플레이 제조시설 건설 인센티브 지원

< Semicon India 정책 개요 >

분류	내용
도입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반도체/디스플레이 제조시설 유치를 위한 프로젝트 비용 지원 제도</li> </ul>
중점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반도체 팹, 디스플레이 팹</li> <li>· 복합 반도체/실리콘 포토닉스/센서/디스크리트 반도체 생산 및 조립, 후공정 ATMP 생산시설</li> <li>· 반도체 디자인(설계) 인센티브</li> </ul>
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중앙 정부서 프로젝트 비용의 50% 인센티브 지원</li> <li>· 주 정부에서 추가 보조금 지원 (구자라트 20%, 각 주별 상이)</li> </ul>

\* 자료 : 인도 전자·정보기술부 ISM(India Semiconductor Mission)

## □ 정책 동향 - 제조업 · 사회 인프라 확충

- **(정책)** 모디 총리, 국가의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 촉진을 목표로 6대 분야\* 집중하여 인프라 지원 및 프로젝트 추진
  - \* △교통 △에너지 △물 △디지털 △농업 △도시
- **(제조업 인프라)** 제조업 확장·외국인 기업 투자 확대에 비해 현지 인프라 부족\*, 인도 정부는 FY 25/26 예산에서 GDP 3.1% 규모 투자 예정
  - \* 특히, 도시 인프라(상·하수도), 도로 연결성, 공항 및 항만 건설 등은 인도의 제조업 강화 정책 성공을 위한 필수 선결 과제
- **(사회 인프라)** FY25/26 연방예산서, 도시·주택 부문 예산에 전년 대비 18% 증가한 1,133억 달러 배정하여 사회 인프라 확충\* 예정
  - \* 대도시 중심 상하수도, 주택, 도로, 신공항 건설, 물/전력 확충 등 프로젝트 추진

## □ 정책 동향 - 보호무역

- **(보호무역)**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확대 및 인도의 對중국 무역적자\*에 따라 인도 정부는 철강·자동차부품 등 중간재에 대한 보호무역 강화
  - \* FY25('24.4월~'25.3월), 인도의 對中 수출 142억 달러, 수입 1,134억 달러로 무역적자 992억 달러 육박. 주요 수입품은 전자부품, 배터리, 태양광 셀 등
  - \* '25.4월 미국무역대표부(USTR)는 인도표준국(BIS) 인증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우려 제기, 이에 인도 정부는 관세 인하는 물론 인도표준국(BIS) 인증 완화 검토

< 인도 보호무역 주요사례 >

분류	내용
품목분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인도 관세당국, 진출기업의 과거 수입내역을 조사하여, 기존에 수입하고 있는 HS코드보다 높은 세율의 HS코드 적용 주장</li> <li>· 인도 관세당국, 폭스바겐·삼성전자·기아차 등 글로벌 기업이 부품 수입 시 저세율의 HS코드로 품목분류 했으며, 미납관세·과징금 부과 분쟁 중</li> </ul>
인증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BIS)* '20년 말부터 철강·화학 중심 중간재 위주로 인증대상 품목 확대, '25.4월 기준 강제인증대상 품목 791개 운영(인도 수출시 필수인증)</li> <li>· BIS(인도표준국, Bureau of Indian Standards) : 품질관리 인증 주관 기관으로 대상 품목의 경우 인도 수입·유통을 위해서 제조자가 BIS 인증 취득 및 인증마크 표기 필수</li> <li>· 인증절차에 공장실사 등이 포함되어 있어, 인증 취득기한에 6개월~1년 이상 소요 되는 등 우리기업이 비관세장벽으로 인식하는 사례 다수</li> </ul>

## □ 유망분야 및 품목

- **(전자부품)** 스마트폰(아이폰·삼성) 조립 필두로 인도 내 전자산업 성장 중이나, 서버어셈블리·모듈 등 부품\* 및 자본재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  
\*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센서, PCB, 카메라모듈, 통신장비 부품, 이차전지, 파워매니지먼트 등

### 현장의 목소리

☞ **현지 협회(전기·전자/인도)** 인도는 '24년 세계 2위 스마트폰 생산 국가로 수입의존도 높은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센서, PCB, 카메라모듈, 이차전지, 통신부품 등 시장 유망

- **(설비·자본재)** 인도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반도체\*·디스플레이·이차전지 산업 공장 건설 관련, 기계·설비 등 자본재 공급 유망  
\* 인도 내 4개 반도체 생산라인 건설 중 △Micron ATMP(조립-시험-마킹-포장)공장 △TEPL-PSMC 파운드리공장 △ TSAT ATMP △ CG파워-르네상스 ATMP공장
- **(자동차부품)** 수입의존도 높은 파워트레인(엔진·변속기부품) 및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전장부품(모터제어기, 배터리관리시스템, 충전시설) 수요 증가  
\* 인도 현지서 현대기아차 생산량 확대중, 한-인도 CEPA협정 활용한 저관세 수출 가능

### 현장의 목소리

#### ☞ 바이어 R社(완성차/인도)

- 인도 첸나이서 연 48만대 규모 생산법인 운영중이며, 4개 모델(전기차 포함) 20만대 증산을 위해 자본재 및 자동차부품(ADAS, ECU 등) 조달 예정
- 한-인도 CEPA로 원가절감 가능하므로 공급가능 한국 부품기업 소개요청

- **(특수화학물)** 인도 제조업 생산량 확대 및 운송수단 증가에 따라 윤활유, 엔진오일, 그리스 등 고급기유 수입 수요 높게 유지  
\* 인도에서 생산이 안되는 고급기유 및 기능성 코팅제, 페인트 등 특수화학물 전반 수요 높음
- **(건설장비)** 인도 내 다수의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중으로, 백호로더\*, 크롤러 굴삭기\*\* 등 건설장비 수출 유망  
\* 백호 로더 : 흙이나 자갈 등을 퍼서 이동하는 기계인 로더와 뒤쪽의 작은 굴삭기인 백호 기능을 결합한 장비, 주로 소형 건설 현장 또는 도로 공사에 사용  
\*\* 크롤러 굴삭기 : 중대형 건설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굴삭기의 일종, 깊은 굴착 작업 또는 큰 물체 옮기는데 주로 사용

- (전력기자재) 인도 정부, '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500GW 전력 생산 목표, 전력 송·배전, 에너지 저장시스템(ESS) 등에 대한 수요 증가
  - \* 인도 신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할 ESS 및 전력 송·배전 인프라 분야 협력 유망
  - \* 고수명·효율 발전용 기자재, ESS 부품과 제조설비 수출 유망

**현장의 목소리**

**바이어 A社(인프라·건설/인도)**

- 인도 정부,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500GW 전력 생산 목표, 폭발전 전력 수요 대응 위해 '31년까지 원자력 발전 22.48GW 목표
- 품질 좋은 한국형 에너지저장장치(ESS) 부품과 제조설비 수출 유망

- (식품·화장품) 인도는 한류 고성장 국가로 한국 콘텐츠 소비가 화장품·식품 등 K-소비재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지는 시장
  - \* 대인도 화장품 수출액(만 달러) : '22년 3,663 → '23년 4,621 → '24년 7,797
  - \* 대인도 식품 수출(만 달러) : '22년 932 → '23년 1,337 → '24년 1,676

**3 멕시코 북미 공급망으로서 기회요인 여전, 정부 주력사업 주목해야**

□ **최근 시장 동향**

- '24년 기준 對美 수출 1위국으로 美 통상 조치 직접 영향 불가피
  - 바이든 행정부 당시 IRA법 등 글로벌 공급망 중심지로 부상했으나,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관세 정책\* 등으로 불확실성\*\* 증가
    - \* 트럼프 행정부 취임 직후 펜타닐·IEEPA 관세 25% 부과 등 무역 압박
    - \*\* '26년 USMCA 재협상(예정)에 따른 무역환경 전면 재편 가능성 존재
- 그러나 북미 공급망 핵심국으로서의 가치 여전
  - 멕시코 정부의 적극적 협상 참여와 미국 기업 요청 등으로 USMCA 충족 품목 관세가 면제\*, 북미 공급망 핵심국으로서의 가치 여전
    - \* 멕시코 : 상호관세 대상 제외, 펜타닐관세 유예로 USMCA 충족 제품은 관세율 0%, 한, 일, EU 등 경쟁국 : 상호관세(base line) 10% 부과 중

- \* **멕시코 경제부 '25년 1분기 민간 분야에서 39개 프로젝트, 259억 달러 투자 유치 발표**
  - 주요 투자기업 : Walmart (미국 유통기업) 61억 달러, Mercado Libre (아르헨티나 E커머스 기업) 35.8억 달러, Sempra (미국 천연가스 기업) 35.5천억 달러 등 (멕시코 경제부 / 4.16.)
- \* **누에보레온 주지사 유럽순방 통해 20억 달러 투자유치 (25.4.8)**
  - 자동차: Volvo Trucks 10억 달러 투자, SKF (자동차부품 기업) 멕시코 내 공장 확대를 위해 7,000만 달러 투자 등
  - 운송업계: Flixbus (독일) 1억 6200만 달러 투자로 교통 허브 건설 예정
  - 로봇업계: KUKA 멕시코 내 첫 연구개발센터 개소 예정

- **(정치적 안정성)** 세인바움 대통령, 미 관세정책 불확실성 속 리더십 발휘하며 '25년 상반기 다수 여론조사에서 70~82%의 높은 지지율 유지

## □ 정책 동향

- **(플랜 멕시코 발표)** 국내 경쟁력 제고 및 대외 의존도 축소 노력
  -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, 국내 경쟁력 제고 및 대외 의존도 축소를 위한 '플랜 멕시코(Plan Mexico)' 발표('25.1~)
  - 주요내용은 멕시코 산업, 투자,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령과 인센티브 제공, 니어쇼어링 촉진, 산업클러스터 개발 추진 등으로 구성
- \* 세인바움 대통령은 2030년까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 목표

### < 플랜 멕시코 주요 내용 >

분야	내용
에너지 주권	가솔린, 디젤, 항공유 생산 30% 증가 및 가스 수입 감소
공공사업	도로, 철도, 항만 등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 가속화
전력	신규 발전소 건설에 123억 달러 투자 예정
주택	공공 및 민간 투자 계획
소비재·제조업	섬유·신발·철강·알루미늄·반도체 등 국내 제조업 강화
의료	멕시코 식약청 행정 간소화, 의약품 및 의료 장비 국산화
석유화학	비료 및 석유화학 제품 생산 확대
FDI	FDI 투자 포트폴리오 확대 위해 디지털 투자 창구 마련

- **(우회수출 단속 강화)** 멕시코 내 중국 겨냥 우회수출 단속 강화 움직임 포착
  - ①전기차 수입 관세 면제 종료, ②섬유·의류 수입 관세 부과, ③IMMEX\*내 특정 품목 수입 금지, ④국제 택배 관세 부과 등

\* 수출 진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, 멕시코 내 위치한 제조·서비스 수출 기업 대상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시기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

## □ 유망분야 및 품목

- **(전력·인프라)**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 정부·민간 프로젝트 활성화
  - 멕시코 정부 '플랜 멕시코' 및 '2025-30 CFE(멕시코 연방전력청) 국가 전력 시스템 확장 계획' 추진으로 전력 기기 현대화 수요 존재
  - (유망품목) 전력용 컨덴서, 초고압 송전 장비, 스마트 그리드\*, 고효율 변압기, 배전망 자동화 장치, 고강도 전선 등
  - \* 자동화 제어 시스템, 전력 흐름 제어, 전력 계량 시스템 등
  -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어 인프라·도시시설관리, 교통·물류 분야 내 스마트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
  - (유망품목) CCTV, 스마트 카메라, 차량번호판 인식 기술, 입출차 관리 시스템, 차선 침범 센서 및 안내 시스템, 음성 안내 시스템, 자동 조명 제어 장치, AI 안면·행동 인식 솔루션 등

**현장의 목소리**

🗣️ **바이어 B社(스마트보안 솔루션/멕시코)** 멕시코 시장은 보안, 인프라 현대화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스마트 기술 도입의 뚜렷한 전환 흐름을 보이고 있음. 특히 감시 및 교통 시스템에 AI를 통합하는 흐름은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중요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으며, 전력 인프라 산업 또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전력망 현대화 투자에 힘입어 전략적 전환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음.

- **(기계·장비)** 정부 주도 인프라 확장 사업, 산업단지 개발 등 수요 기대
  - (유망품목) 머시닝 센터, 밀링 머신, 금속 절삭 가공용 선반 및 멀티 스테이션 기계, 측정 및 품질 관리 기기, EDM(방전가공) 분야 수요

- **(전기차·배터리)** 친환경 자동차 전환 가속화·전기차 개발 민관 협력 강화
  - 멕시코 연방 의회 내 전기·하이브리드 차량 확대를 위한 법안(Ley General de Movilidad y Seguridad Vial) 개정 중이며, 2030년까지 신규 차량 판매의 50%를 전기·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전환 및 전국적 충전 인프라 구축·표준화, 정보 플랫폼(ElectroCRE) 도입 예정
  - **(유망품목)** 리튬이온배터리, 배터리팩, BMS(배터리관리시스템), 열관리 및 냉각시스템, 전기구동시스템(인버터, 컨버터, 전력제어유닛, 전자식 변속기 등), 히트 펌프, 충전 인프라 및 부품(충전소용 트랜스, 케이블, 커넥터 등), 차량 경량화·신소재 차체 부품 등
- **(의료바이오)** 중남미 新정부 공공의료 확대,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
  - 국가 GDP 5.1%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, 멕시코는 세계 11위 의료기기 시장이자 14위 의약품 시장
  - **(유망품목)** 고해상도 영상, AI 기반 진단 기기(MRI, CT, 초음파), 첨단 이미징 솔루션, 정밀 레이저, 수술용 로봇, 호흡기나 중환자 관리기기(산소발생기, 바이탈 사인 모니터), 재활·보조기기(의족, 의수, 정형외과용 보조기구 등)
- **(한류 소비재)** 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이 식품 수요로 확대
  - **(뷰티)** 한국산 마스크팩, 자외선 차단제, 안티에이징 크림 등 수요 존재
    - \* 인구 96%가 화장품을 소비하며, 가처분 소득 증가로 시장 확대 기대
    - \* 1인당 연간 평균 소비액(유로) : '20년 5,150 → '23년 9,140
  - **(유망품목)** 멀티 세럼·에센스(토너+로션+에센스 결합), 펩타이드·프로바이오틱스 등 첨단 바이오 성분 포함된 화장품, 고기능성 재생 솔루션 제품 등
  - **(식품)** 한식 수요는 매년 증가세\*, 타 제품 대비 고가임에도 한국 식품의 높은 품질과 매운맛으로 인기가 높음
    - \* '24.1~10월 한국 농축산식품 멕시코 수출액 4,800만 달러(전년동기비 42.7%↑)(자료 : aT)
  - **(유망품목)** 간편식 라면, 김밥, 떡볶이, 만두 등 분식류와 김치, 불고기, 비빔밥, 삼겹살, 치킨 등\*
    - \* 단순한 문화적 경험 전파를 넘어 비리야니, 포솔레, 라임, 오레가노맛 등 멕시코인의 입맛에 맞춘 현지화 전략 적용 필요

#### 4 헝가리 · 폴란드 EU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수요 공략

##### □ 최근 시장 동향

- **(제조업)**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자동차·전자제품 클러스터 구축
  - EU 단일시장 소비자에게 빠르게 접근 가능한 유럽 중심부에 위치
  - 주요 글로벌 자동차 및 전자제품 제조사가 진출, 각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유럽 시장의 제조·수출 허브 역할 수행
- **(중국 투자유입)** 헝가리-중국 경제협력 강화, 투자액 증가 추세
  - 중국의 對헝가리 투자액, 전기차 배터리·인프라 건설 등에 집중
    - \* '24년 52억 유로(헝가리 전체 투자 금액의 51%)
  - CATL '25년 하반기 가동 목표로 73억 유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, BYD 40억 유로 규모의 전기차 완성차 공장 건설 추진
  - 헝가리 공장에서 최소한의 가공 공정을 거쳐 EU·미국 고율관세를 우회하여 시장에 접근하는 전략 추진
    - \* 경제 성장·산업 현대화에 대한 기대와 대미관계 악화 가능성의 불안감 공존
- **(인프라 확대)** EU 기금 및 정부 투자를 활용한 에너지·환경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증가 전망
  - **(헝가리)** EU 그린에너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(풍력, 태양광), 원자력, 화력발전소 현대화, 폐기물 처리 등 탄소배출 저감 관련 수요 증가
  - **(폴란드)** 국가 회복 복원계획(KPO) 통해 송배전 현대화, 철도, 디지털 전환 등 인프라 관련 총 600억 유로 규모 집행 재개
- **(재생에너지)** 폴란드, 에너지 믹스 재편 가속화
  - REPowerEU 및 Fit for 55 정책에 맞춰 '40년까지 현 25GW 수준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90GW로 확대 계획

- (해상풍력) 폴란드·덴마크 합작으로 1.5GW 규모 「Baltica 2」 해상풍력 단지 건설 추진(71억 유로 규모, '27년 완공 목표)
- (태양광) 소규모 분산형 발전소 및 기업형 태양광 발전소 적극 지원에 따른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(BESS) 수요 증가
- (한류) K-컬처 유행에 힘입은 한국 소비재 인기 증가
  - 주요 드럭스토어 채널에서의 한국산 화장품 취급 비중 증가, 한류 트렌드를 넘어 제품의 성분, 효능에 주목 시작
  - 한류의 영향으로 식품 인기가 급등하여 현지 수요 증가, 대형 리테일 유통업체 등에 한국 식품 신규입점 증가 추세

□ 정책 동향

- (배터리 제조 기지) 헝가리 정부는 新 배터리 공급망 구축 목표, 폴란드는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적극적인 투자유치
- (헝가리) 동부 지역 중심을 중심으로 한 배터리 제조 기지 형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혜택 등 제공, '30년까지 전 세계 4위 배터리 생산국 성장 기대

< 헝가리 투자청(HIPA) 지원 주요 내용 >

구분	내용
지원 형태	· 자본 지원(캐쉬 그랜트)
투자지원	· VIP 지원, 세금 면제지원(최대 80%) 등 *지역별 상이
R&D&I 프로젝트	· 프로젝트 비용 최대 50% 지원, 세금 최대 100% 면제 지원 등
역량강화	· 직원 교육 비용 최대 50% 지원
넷제로 에너지 전환	· 비용 지원, 세금 최대 80% 면제 등

- (폴란드) 배터리 제조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(BESS) 확대 구축을 위해 '25년 4월부터 10억 달러 규모 보조금 지원 정책 추진
- \* BESS, 전력망 안전성, 스마트그리드 등 분야 최대 65% 규모 비용 지원
- (탄소중립)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, 경제성장,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정책 추진

- (폴란드) 폴란드 에너지 정책 2040(PEP 2040) 달성을 위해 EU 기금을 포함한 재정 및 지원 정책을 동원하여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
  - \* 11GW 용량의 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성, 6~9GW 용량의 원자력 발전소 구축, 스마트 그리드 기술 및 에너지 저장시스템(ESS) 구축 등 '25년 국가 투자 계획에 따른 총 약 1,600억 달러 규모 에너지 관련 투자 계획 발표
- (헝가리)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저장 프로젝트 추진
  - \* '30년까지 1GW의 저장 용량 구축을 위해 에너지 저장시스템(ESS) 도입 적극 추진, '24년 62억 포린트(약 1.7억 달러)를 프로젝트에 할당하며 440MW 용량의 그리드 스케일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 지원

## □ 유망분야 및 품목

- (이차전지) 급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파생된 배터리 소재, 제조 설비 및 관련 인프라 확충 수요
  - 유럽 내 이차전지 생산량 증가로 핵심 소재 수요 증가 예상, EU의 전기차 장려 정책으로 전기차 충전소 증설 필요성 대두
  - 중국의 헝가리 이차전지 투자 확대에 따른 설비 수요 겨냥 가능
    - \* 첨단 제조설비 및 생산 자동화 기술의 필요성 증가,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이 높게 평가됨. 이를 통해 헝가리 배터리 소재 및 부품 공급망 구축에 동참
- (유망품목) 이차전지 4대 핵심 소재(양극재, 음극재, 분리막, 전해질) 및 원자재, 전기차 충전기, 이차전지 제조 자동화 설비 등

### 현장의 목소리

👉 **현지 협회(이차전지/헝가리)** 고급 기술력에 기반한 한국 제품은 프리미엄 시장에서 높은 신뢰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, 최근 시장이 가격 경쟁력과 안전성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한국의 이차전지가 더욱 주목받고 있음.

- (친환경 에너지) 친환경 에너지 전환 트렌드에 맞는 품목 공략
  -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한 정책 추진에 따라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위한 장치·기술, 에너지 효율 솔루션에 대한 수요 증가

- 유럽 에너지 효율 정책, 환경 정책에 따라 에너지 절감 장치 또한 인기
- EU기금을 활용한 에너지 프로젝트 발주 수요에 대응하여 공공 및 민간 기업과의 협력 강화
- (유망품목) 에너지 저장시스템(ESS), 고효율 전력 관리 시스템, 스마트 그리드 솔루션, 스마트 계량기, 히트펌프, 원전 솔루션, 친환경 건축 자재 및 설계 등

#### 현장의 목소리

👉 **현지 진출 한국기업 L社(친환경에너지/폴란드)** 폴란드 국영전력공사(PGE)가 발주한 유럽 최대 규모 ESS 건설 사업 수주 등 현지 생산 역량과 유럽 전용 LFP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현지 진출. 폴란드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믹스 56% 전환 목표에 따른 해당 산업의 추가 기회 존재

- (한류) K-트렌드를 활용하여 품질·성분·효능으로 승부
  - 한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며 한국 소비재에 대한 관심 고조
  - 친환경·지속가능성·웰빙·고품질 트렌드를 반영하여 제품 현지화 필요
    - \* 오가닉·비건 인증, 친환경 포장 등 각종 기능성 인증 포함
  - 대형 유통망 및 벤더와의 협력하여 시장 진입·판매 확대 및 채널 다각화, 소셜 미디어·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 및 체험 프로모션으로 인지도 제고
  - (유망품목) 기초·색조 화장품, 식품, 건강기능식품, 미용 홈케어 기기 등
- (의료기기/바이오) 현지 병원·제약사와의 협력 진출 공략 필요
  - 헝가리 정부, 'Healthy Hungary'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 서비스 개선과 의료기기 현대화를 추진 중
    - \* 2028년 헝가리 의료기기 시장 규모 18.2억 유로 전망
  - (유망품목) 고기능 진단·치료기기 및 바이오 생산설비(CDMO)

### 3 산업화 고도화 수요 유망시장

#### 선정 배경

□ **유망시장** : **중동** UAE · 이집트 · 모로코 · 사우디, **서유럽** 독일 · 이탈리아 · 벨기에 · 프랑스

#### □ 현지 정책 · 시장 여건

- **첨단 산업 전환을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**
  - (중동) 전통적 석유산업을 넘어서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투자로 AI·핀테크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 중
  - (EU) 글로벌 수요 둔화와 저가 중국산 제품 유입 공세로 제조업 분야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쟁력 확보 필요성 증가
- **친환경 전환 정책으로 관련 분야 제조업 육성 중**
  - (중동) 주요국은 전력 수요 충족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,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EV 보급 및 관련 인프라 확대 중
  - (EU) 수송, 에너지 등 고탄소 배출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 감축 정책을 추진, 전기차, 배터리 등 청정산업에서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
- **통상 환경 변화 속 공급망 재편 움직임**
  - (중동) 유럽-아프리카-서남아를 잇는 지리적 이점과 미·중과의 유연한 대외 관계를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GVC 확보가 가능
  - (EU) 각종 ESG 정책은 사실상 통상 규범으로 연결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핵심 기술·원자재에 대한 역내 공급망 강화를 추진 중

#### □ 우리기업 경쟁 여건

- **산업 고도화에 따른 기술력 수요 증가**
  - 중동에서는 AI·클라우드·데이터센터 등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하며, 유럽에서는 생산 혁신을 위한 자동화 로봇의 수요 증가 전망
  - 중동·EU 모두 정부 주도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로 스마트그리드, 전기차 인프라, 에너지 저장 기술 부문 등에서 협력 수요 다대
- **현지 협업 강화를 통한 新공급망 편입**
  - 중동의 전략적 위치와 EU의 ESG 정책을 활용해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회 확보 가능

◆ (중동) 첨단·그린산업 등 비석유 부문 육성에 따른 협력 기회 다대

◆ (서유럽) 생산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·제조업 DX 분야 수요 성장 중

**1 UAE · 이집트 · 모로코 · 사우디** (중동 산업화 국가)

**포스트오일 신산업 육성 정책과 경제협력을 통해 대체시장으로 부상**

□ **시장 동향**

- **(허브화)**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물류·문화·서비스 분야 허브로 각광
  - (물류) 중동은 5개 대륙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,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물류 허브로 활용 가능
    - \* UAE·사우디는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정학적 갈등, 글로벌 해상 물류 재편 움직임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음
  - (관광·서비스) 아랍 문화의 폐쇄성에서 벗어나 관광객 유치에 위해 카지노<sup>UAE</sup>, 스포츠<sup>사우디, 모로코</sup>, 게임<sup>사우디</sup>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 투자 확대
- **(인구 보너스)** 구매력 갖춘 젊은 인구가 견인하는 핫스팟 소비시장
  - \* 산업 다각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, 도시화 추진으로 40대 미만 인구가 전체의 70% 차지
  - (전자상거래) 사우디·UAE 등에서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기반, 팬데믹 이후 온라인 소비가 크게 확대, 모바일 기반의 소비 주도
  - (한류) 중동의 개혁·개방 정책 및 관광문화 산업 활성화와 맞물려 한류 및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·선호도가 빠른 속도로 증가
    - \* 2025 해외한류실태조사(국제문화교류진흥원) 결과 조사대상국(28개국) 중 사우디(1위, 80.7%), 이집트(2위, 79.4%), UAE(4위, 77.3%) 등의 한국산 제품 구매 의향이 높게 나타남
- **(파트너십)** 한-중동 무역협정으로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안정성 확보 가능
  - (경제협력) 한-UAE CEPA 타결, 한-GCC FTA 체결로 중동 시장 선점이 가능하며 인근지 진출 교두보로서 간접 효과도 기대
  - (안정적 대미·대중관계) 중동 국가들은 미·중 사이 상대적인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어,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 제공 가능
    - \*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해외 순방지로 5.13~16일 사우디·카타르·UAE 방문
    - \*\* UAE·사우디는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에너지·석유화학·무역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중

## □ 정책 동향

- (탈석유) AI 육성과 그린 에너지 전환으로 석유산업 의존 탈피 노력
  - (AI) UAE·사우디는 강력한 정부 정책과 막대한 국부펀드를 기반으로 AI·데이터 등 디지털 경제 분야 주도권 확보에 총력
  - (에너지 전환) 풍부한 자원과 높은 일조량을 갖춘 최적의 재생 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그린수소 생산 투자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추진
    - \* ▲<sup>UAE</sup> 약 70조원 규모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▲<sup>사우디</sup> 국가 전력소비 50% 재생에너지로 총량(~30년)
    - ▲<sup>모로코</sup> 그린수소 프로젝트 용도로 서울시 크기의 약 17배 부지 할당 ▲<sup>이집트</sup> 전세계 그린 수소의 8% 생산(~40년)
- (도시화) 인구 증가 및 도시화 가속에 따른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
  - (인프라 확장)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관련 인재를 대거 유치하면서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수요 지속
    - \* 교통 인프라 <sup>UAE</sup> 사우디 뿐만 아니라 FIFA 월드컵 유치에 따른 스포츠관광 <sup>사우디</sup> 모로코 수요도 성장 전망
    - \*\* 미국발 관세 부과로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비용 상승이 예상되나, 기존 미국에 수출됐던 제품이 UAE·사우디 등 신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건설 비용 하락 전망
  - (스마트시티) 오일머니 바탕의 중앙집권적 정책 추진과 국가 스마트시티 전략을 통한 인프라 현대화에 박차
    - \* ▲<sup>UAE</sup> 2040 두바이 도시 마스터플랜 ▲<sup>사우디</sup> NEOM 및 리야드의 Diriyah Gate(디리야 게이트)와 New Murabba(뉴무랍바) ▲<sup>이집트</sup> 신행정수도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 중
- (제조업) 중동·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배후 생산기지로 부상 중
  - (자동차) 모로코에는 제조단가를 절감하려는 유럽 기업들의 투자 활발, 이집트는 현지 자동차(전기차 포함) 제조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목표
    - \* 모로코는 미국·유럽 등 55개국과 FTA 체결, 자동차 생산 르노, 스텔란티스 아프리카 1위 50만대
  - (섬유·의류) 이집트는 저렴한 노동력, 안정적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(QIZ 협정\*), EU(FTA 체결) 등 주요 시장 무관세 수출도 가능
    - \* 이집트는 이스라엘산 원부자재를 10.5% 사용한 섬유·의류 제품을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 가능
  - (전자제품) 이집트는 GVC 재편에 따라 가전제품·핸드폰 등의 현지 생산을 적극적으로 촉진 중이며 기업 간 협력 수요도 다대
    - \* 삼성전자(스마트폰TV), LG(세탁기TV) 등이 이집트에서 현지 생산하여 중동·아프리카로 수출 중

## □ 유망분야 및 품목

- **(자동차·자동차부품)** 완성차·자동차 부품 수입 수요가 견조하며 현지 제조업 부흥 정책을 활용해 유럽·아프리카 생산 거점으로 활용 가능
  - \* 현지의 거친 도로 사정과 높은 기온으로 타이어, 브레이크 패드, 에어컨의 교체 주기가 짧으며, 차체, 브레이크, 서스펜션, 케이블, 샷시 등 부품의 수출도 유망
  - \*\* 중동 국가들은 자체 브랜드 사우디-Ceer 또는 글로벌 그룹 사우디-현대차 및 LUCID, 이집트-FAW 그룹, 모로코-르노 과의 협업을 통해 현지 제조 능력을 갖추고자 노력 중

현장의 목소리	
👉	<b>바이어 A社(자동차 부품/사우디)</b> 도로 사고 증가와 고온 기후로 인해 에어컨 부품과 차량 외장 부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, 한국산 부품은 일본산에 비해 수명이 짧다는 인식이 있어 유의 필요함
👉	<b>현지 진출 한국기업 K社(자동차 부품/이집트)</b> 일반적으로 타이어의 교체 주기는 4년이나, 이집트의 경우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평균 3년마다 타이어 교체 수요 발생 * 최근('23~'24년) 외환 위기로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하였고, 이에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중국 및 태국산 타이어 점유율 상승세
👉	<b>현지 진출 한국기업 H社(자동차 부품/모로코)</b> 유럽 대비 모로코 인건비가 1/5 수준으로 저렴하고, 자동차 생산량이 아프리카 1-2위일 정도로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한-모로코 간 FTA체결 시 현지 공장 진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

- **(전기차·충전인프라)**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EV 보급을 확대 중이며, GCC·이집트에서는 투자유치를 통해 적극적인 현지 생산 촉진 중
  - \* 전기차 DC 급속 충전기, 충전소 관리 SW 등 충전 인프라 수요도 높으며 사우디 현지 원자재(원광석) 및 FTA를 활용한 투자 진출 모로코도 가능
  - \*\* (사례) 이집트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중국 등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를 유치하고, 현지 제조 전기차 구매자 대상으로 5만 이집트 파운드(USD 1,000)의 보조금을 지급 중

현장의 목소리	
👉	<b>바이어 G社 (자동차 부품/UAE)</b> UAE 소비자는 높은 가처분 소득을 보유, 유행에 민감하고 친환경·ESG 관련 인식이 제고되고 있어 전기차가 빠르게 확산 중

- **(전력기자재)** AI 육성에 따른 데이터센터 증설과 도시 확장·국제 행사 개최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,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도 존재
  - \* 에너지 저장 기술(ESS), 스마트 그리드 등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중동의 고온 기후에 적합한 내구성 강한 태양광 패널 및 관리 솔루션 수요 확대 중
  - \*\* (사례) 사우디는 '30년까지 AI 팩토리 및 관련 인프라 구축운영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 예정으로, 대용량 전력 기자재(변압기·UPS·배전반·스위치 기어·ESS·냉각 장비 등) 직간접적 수요 다대

- **(인프라) GCC 국가 중심으로 육·해·공 복합 물류 인프라 확장 중**  
- 중동-EU-인도 경제회랑\*, 두바이 알막툼 국제공항<sup>UAE</sup>, 리야드 통합 물류 경제 특구<sup>사우디</sup> 등
  - \* 공급망 안정 및 무역 촉진을 위해 인도-GCC-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 사업으로, GCC 회원국 간 2,500억 달러 규모의 총길이 2,177km 철도망 구축 중
  - \*\* 또한 월드컵<sup>모로코, 사우디</sup>, 세계 EXPO 유치<sup>사우디</sup> 등으로 건설장비 수요도 지속 증가 중이며, 특히 모로코는 2030 월드컵 계기로 한국 건설중장비 수요 다대
- **(의약품·의료기기) 중동 내 의료·제약 제조업 인프라 확장 정책으로 협력 기회가 증가 중, 중동 성인병 유병률 상승으로 의약품 수요도 꾸준**
  - \* (사례) 이집트는 '24.7월부 한국을 의약품 참조 국가로 지정하면서 수입 절차가 간소화 됐으며, 백신, 초음파 진단기기, 임플란트, 혈당측정기 등 수출 유망

**현장의 목소리**

☞ **바이어 D社 (의료기기·치과용 기자재/UAE)** 인구 증가, 엔데믹 이후 의료 수요 회복, 구강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 등으로 구강 질환 진료와 치과 기자재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,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심이 확대 중

- **(의류·섬유) 섬유·봉제 분야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으며, 미 상호 관세율도 타 국가 대비 낮은(10%) 이집트를 중심으로 진출 유망**
  - \* (사례) 美 조치 발표 후 베트남인니 등에 진출한 우리 의류 봉제 기업들의 이집트 진출 문의 증가
- **(소비재) 다양한 연령층과 소비 계층을 보유한 시장으로 특히 한국산 화장품, 할랄 인증을 획득한 식품, 게임·OTT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음**
  - \* 對중동 한국산 화장품 수출액(백만불,%): ▲<sup>(22)</sup> 115 → ▲<sup>(23)</sup> 161(+39.9)→ ▲<sup>(24)</sup> 313(+94.6)

**현장의 목소리**

☞ **현지 전시회 주최기관(화장품/모로코)** 한류 인기로 인해 한국 화장품을 찾는 관람객이 매우 많았으며, 향후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중동·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다고 판단됨.

2 독일 · 이태리 · 벨기에 · 프랑스 (제조업 혁신파트너)

제조업 고도화 · 신재생 에너지 확대 수요 속의 기회

□ 시장동향

- (현황) EU는 대내외 수요 회복 지연, 중국산 대량 유입 등으로 제조업 경쟁력 부진에 대한 위기감이 조성
  - (수요 감소)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제조업 역내외 신규 주문 31개월 연속 감소('24.9. 기준), 수요침체 지속
    - \* EU GDP 성장률 추이 (전분기 대비, %) : 0.3<sup>(24.1Q)</sup> → 0.3<sup>(24.2Q)</sup> → 0.4<sup>(24.3Q)</sup> → 0.4<sup>(24.4Q)</sup> / EUROSTAT
  - (중국산 유입) '24년 EU 전체 전기차 판매 중 23.8%가 중국산, EU 전체 생산량은 전년 대비 △6.2% 감소(총 1,141만 대) (자료 : ACEA / '25.3.)
    - \* 美 상호관세로 유럽으로 경로를 튼 중국산 대량 유입 가능성 ↑, 제조업 영향 우려
- (혁신수요) 독일·이탈리아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유럽국 중심으로 생산 비용 절감 및 생산성 제고 필요성이 강조
  - (高 생산비용) 높은 임금, 러-우 사태 이후 더욱 가중된 기업의 에너지 가격 부담(미국 대비 2배 이상) 등이 해결 필요한 과제
  - 또한, 생산 자동화, 생산 시스템 효율화 제조업 DX 중요성 부각

□ 정책 동향

- ESG 정책의 '통상 규범화', 역내 공급망 강화 추진
  - 공급망실사지침(CSDDD) 등 대표적 ESG 규제와 함께 주요 원자재 공급망 강화 위한 역내 생산 촉진법 시행(핵심원자재법)
  - 다만, 美 관세 조치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역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최근 일부 규제의 시행을 연기\*하기도 함
    - \* EU 집행위, '옴니버스 패키지' 제안('25.2.), CSDDD의 입법 전환 시기를 1년 연장<sup>'26.7..26. →'27.7.26.</sup> 하는 등 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 및 보고의무 축소

- 반면, 청정·첨단산업 지원책 강화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 동시 추진
  - ‘청정산업딜’ 발표<sup>(24.2.26.)</sup>로 청정기술·탈탄소화 중심의 산업 경쟁력 확보 강조, 1천억 유로<sup>(한화 약 161조)</sup> 규모 우선순위 정책\* 지원 예정
    - \* 산업 공정 현대(효율)화, 청정 기술 제조, 에너지 인프라, 청정 모빌리티 등
- ☞ 생산성 제고·에너지 생산 확대 등 제조산업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

## □ 유망분야 및 품목

- 산업 생산성 제고 위한 제조업 자동화 수요
  - (생산 혁신) 독일, 이탈리아 등 전통 제조국의 중소·중견 기업 자동화 전환 수요 공략, 자동화 로봇 수요 및 생산 효율화 프로젝트 확대 전망
    - \* (이태리) ‘Transizione 5.0’ 정책(‘24~25)으로 제조 자동화 설비 투자에 세액공제(최대 35%) 지원, 중소 제조기업 중심 자동화 설비 도입 진행 중
    - \*\* (독일) 韓엔지니어링 기업 H사가 독일 자동차 부품 생산시설 효율화 프로젝트 참여하는 등 우리 기업 해당 분야 시장 진출 지속 중
  - 유럽의 산업용 로봇 수입 규모가 지속 증가\* 중이며, 특히 중소기업의 자동화 비중은 5.7%에 불과하여(‘22년) 시장 성장 가능성 다대
    - \* EU 산업용 로봇 수입 규모 : ‘22년 4,900만 USD → ‘23 1억 9,500만 USD, 한국의 對 EU 산업용 로봇 수출 전년 대비 62.6% 증가(‘24. 기준 / KITA)
    - \*\* 로봇틱스 기업 D<sup>두산로보틱스사</sup>, 최근 독일 내 유럽 지사 설립(‘24.5.)하는 등 韓 기업 진출 활발
  - (첨단기술 협업) 또한, 공급망 이슈로 유럽 내 반도체 생산 및 연구 협력 수요가 증가, AI·차량용 반도체 등 공동 연구개발 기회 확대 전망
    - \* (벨기에) 아이멕(IMEC), 반도체 설계, 공정, 제작은 물론 인공지능, 바이오전자, 양자 컴퓨팅 등 R&D 활발,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등 韓 기업과도 협력 중
    - \*\* (프랑스) 1,090억 유로 규모 AI 산업 투자계획 발표(‘25.2.), 유럽 최대규모 AI 캠퍼스, 데이터 센터 건립 예정으로 관련 분야 협력 활성화 기대
  - (유망품목)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 부품, 5G 관련 모듈, 스마트 센서, 네트워크 장비, 스마트 공장 솔루션 및 IoT 기반 자동화 장비, 고성능 공작기계, 데이터센터용 장비 및 기자재(무정전 전원 장치(UPS), 보안장비, 냉각시스템 등)

**현장의 목소리**

☞ **바이어 D社(협동로봇/독일)** 독일에서는 스마트팩토리 도입과 산업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협동로봇의 적용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, 협동로봇은 사람과 함께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고 다양한 작업 환경에 유연하게 도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자동차, 전자, 식음료, 물류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

- 에너지 발전 협력 및 에너지 저장·전력망 등 인프라 수요
  - EU 기후 목표 및 에너지 안보 달성 지속 추진 전망, '25~'30년 간 매년 4,500억 유로 규모 투자 수요 예상(IEA)
    - \* (풍력) 年 29GW 증설('24~'30), (태양광) '22년 41GW→'26년 85GW 新 증설, (원전) '23년 발전용량 100GW→'50년 150GW 목표(EU 집행위)
  - (독일) '25년 기준 기후전환기금(KTF)에 약 254억 유로 배정 <sup>한화 약 41조</sup>,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한 산업 에너지 효율 확대에 중점
    - \* 그린 수소 15억 유로, 전기자동차 지원 40.8억 유로,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168.6억 유로, 산업용 전기 지원 33억 유로 배정 등
  - (이탈리아) '30년까지 에너지원의 40.5%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 계획, 풍력 28GW, 태양광은 80GW까지 용량 확보 필요한 상황
    - \* '24년 기준 발전량 : 풍력(13GW), 태양광(37GW), 현재 각각 15GW와 43GW의 추가 시설 확충 진행 중이며, 남부지역 중심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진행 중

**현장의 목소리**

☞ **바이어 M社(스마트미터/이탈리아)** 가스 및 수도 분야의 스마트미터 보급 확대와 노후 계량기 교체 프로젝트 진행 중, 스마트 미터기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한국산으로 공급받고 있음

- (프랑스) '30년까지 전력 생산량의 40%, 최종에너지 총 소비량에서 33% 신재생에너지로 충당 계획\*, 해상풍력단지\*\*에 대규모 투자 중
  - \* 태양광 '30년까지 54-60GW 발전 목표('25. 현재 발전량 약 25.3GW)
  - \*\* 해상풍력 '50년까지 50개 발전단지 가동 목표(현재 3개 가동 중), '25년부터 연간 2GW, '30년까지 20GW 용량 입찰완료 목표(현재 발전용량 약 1.5GW)
- (인프라)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송전망 인프라 확충 필수, 또한 전력망 안정 운영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(ESS)\*, 그리드 수요 증가\*\*
  - \* 유럽 ESS 시장 규모, '23년 \$350억 규모→'28년 \$505억까지 확대 전망
  - \*\* 伊 송전공사 Terna는 '25년까지 약 210억 유로 투자 계획 수립, ESS·스마트그리드 연계 확장 진행 / 프랑스는 '40년까지 1천억 유로 규모 전력망 개발 전략 발표('25.2.)

- (수소 발전) 독일을 중심으로 수소 생산·운송·저장\*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본격 준비 중으로 관련 시장 진출 기회\*\* 모니터링 필요
  - \* (생산) 독일, 네덜란드 / (운송) 벨기에, 네덜란드, 이탈리아 / (저장) 독일, 프랑스, 스페인 등 유럽 역내 공급망 구축 계획
  - \*\* 유럽 내 수소 수요는 낮으나(총 수요 0.1% 미만), 차세대 핵심 에너지원으로 인식되며 관련 프로젝트 증가세
- (그린 모빌리티) 전기차 전환 움직임 속 역내 생산시설 확대 추진, '27년까지 각국에 기가팩토리 28개소 신/증설 계획(EU 집행위)
  - \* 전 세계 배터리 수요, '30년 까지 '23년 대비 14배 증가 전망, EU는 전체 수요의 17% 차지 예상 (EU집행위)
- (유망품목) 재생에너지 발전·송배전 관련 품목\*, ESS 및 스마트 그리드\*\*, 전력변환장치(PCS), 배터리관리시스템(BMS), 전기차 인프라 기자재\*\*\*, 고체산화물 연료전지(SOFC), 첨단 센서 등
  - \* 모노파일, 시스템 부품류(변압기, 케이블, 개폐장치, 부속장치), 태양광 인버터
  - \*\* (ESS 및 스마트그리드) 고효율 인버터, 컨버터(초고압직류송전(HVDC) 컨버터 및 케이블 포함), 양방향 PCS(Power Conversion System) 등 전력 변환 장치 및 부품
  - \*\*\* (전기차 인프라) EV 고속충전기, 양방향 충전기, 충전기용 파워 모듈 등

**현장의 목소리**

- ☞ **바이어 R社(ESS/독일)**
  - 독일 바이어는 한국 ESS 기술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, 다만, A/S 체계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
    - \* 특히 소프트웨어적 문제는 현지 파트너를 통해 일정 부분 대응이 가능하나, 하드웨어 고장 시에는 한국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야 하는 등 A/S에 현실적인 제약 발생
  - 상기 문제점 개선 시, 한국 ESS 제품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
- ☞ **바이어 V社(배터리관리시스템(BMS)/독일)**
  - BMS는 전기차 배터리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차량의 안전성과 배터리 수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장치임
  - 특히, 배터리 상태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필요 없는 비접촉식 BMS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☞ **바이어 O社(송배전 전력기자재/프랑스)** 프랑스는 송배전 설비 노후화에 따른 기자재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며,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 연결 인프라가 활발히 구축되면서 송배전 전력 기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
## Ⅲ. 결론

### ◇ [시장] 시장 유형별 변화 양상에 따른 맞춤형 전략 추진

#### □ [유형1] 美中 대체수요 유망시장

- (미국) 단기적으로는 상호·품목 관세 영향에 따른 틈새시장 발굴, 중·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협력 강화와 기회 포착을 위한 첨단기술 협력, 프리미엄 수요 발굴 등 모색
- (중국) 새로운 통상질서가 중국 내수·무역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고려, 다층화되는 수요 맞춤형 마케팅 및 지역·산업별 협력 확대

#### □ [유형2] 글로벌 제조업 재편에 따른 유망시장

- (아세안5) 중국과 수출·투자진출 경쟁 격화가 예상됨에 따라 품목별·시장별 정밀한 협력 수요조사 및 차별화된 마케팅 확대
- (인도) 빠른 경제성장과 제조업·사회적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른 기자재 공급 및 프로젝트 수주지원 추진
- (멕시코) 북미 제조업 중심, 자체 산업경쟁력 강화, 중남미 진출 관문 등 이점으로 산업 협력, 중남미 교두보 사업 등 추진
- (헝가리·폴란드) 중국의 對EU 제조업 진출 확대, 친환경 산업·인프라 수요 증가 등, 유럽과의 제조업·탄소중립 협력 추진

#### □ [유형3] 산업화·고도화 수요 유망시장

- (UAE·이집트·모로코·사우디)<sup>중동 산업화 국가</sup> 탈석유·산업화 등으로 에너지 전환, 인프라 프로젝트 등 협력 강화 필요, 정부의 입김이 강한 지역으로 경제외교 참여 등을 통한 협력 강화 모색
- (독일·이태리·벨기에·프랑스)<sup>제조업 혁신파트너</sup> 제조업 혁신 및 탄소중립 시장 수요 확대에 따른 맞춤형·중장기 협력 강화

## ◇ [전략] 기업 경쟁력과 시장 수요를 고려한 진출전략 수립

### □ [전략1] 개별기업 진출이 어려운 시장은 팀 코리아 활용

- (경제외교 활용) 산업 고도화 시장 등에서 첨단산업 육성 협력 협약, 대규모 경제사절단 동반, 인프라 프로젝트 계약추진 등 경제외교 계기 활용
  - (아웃리치) 주요국과 핵심 산업별 민관합동 아웃리치 활성화를 통해 산업 연계 통상 리스크 완화 및 기업 협력 저변 확대
  - (한류 플랫폼 활용) 한류 인기를 수출로 연결하는 플랫폼 활용
    - 한류 인기가 문화 콘텐츠를 넘어 소비재·가전·건설·의료·첨단산업 등 시장별로 다양한 경제 성과로 확산, 시장 특성별 한류 붐을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플랫폼\* 적극 참여
- \* 엑스포 한국관, 한류박람회, K-Food 팝업 사업, 한국 상품전 등

### □ [전략2] 시장별 변화 양상에 따라 우리 경쟁우위 재포지셔닝<sup>repositioning</sup>

- (가격 우위 활용) 관세정책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 우위를 점하게 된 시장에 대한 마케팅 포인트 전환 또는 신규 진입\* 추진
- \* 업종별 전시회·사절단·상담회 등 참여 또는 디지털마케팅 등 추진
- (품질·기술력 우위 활용) 프리미엄 수요 진입 시장, 산업 혁신 시장, 인프라 확대 시장 등 중심으로 R&D 협력, 테크기업 교류,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등 협력 다각화 추진
- (제조력 우위 활용) 중·장기적으로 제조 협력 등이 필요한 지역 중심 소재·부품·장비 파트너링, 제조 기자재 수출, 제조업 투자진출 등 지속 가능한 제조 협력 확대 추진
- (진출채널 다각화) 현지에 이미 진출한 제3국 기업과 협력, 현지 유력 네트워크 활용, KOTRA 지사화 서비스 등 활용하여 단기간 내 접근성 제고 추진

## □ [전략3] 기업의 경쟁력 강화

- **(투자진출 다변화)** 관세 약세 지역 등으로 해외진출 다변화
  - 유망시장 진출정보 파악, 법인설립 자문, 초기운영 자문 등 현지 진출 밀착 지원을 위한 KOTRA 해외무역관 지원기능 활용
  - 특히 글로벌 사우스 등 기업의 직접 진출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KOTRA 해외무역관 등 유관기관 인프라를 초기 디딤돌로 활용
- **(비용절감)** 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한 기업 부담 절감 노력
  - 관세로 인해 바이어로부터 단가 인하 및 계약 지연을 요청받아 기업 부담 비용 상승\*,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물류 인프라 지원, 바우처\*\* 등을 활용한 기업 고정비용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활용
    - \* (플랜트기자재 진출기업 F사) 거래중인 바이어, 납품 단가를 최소화 요청 (항공 기자재 G사) 상호관세 발표로 바이어와의 PO 협상 및 발급 연기
    - \*\* (관세 바우처) 관세로 인한 기업의 일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 전문가 연계 관세 컨설팅, 생산거점 이전, 대체시장 발굴 등을 패키지로 지원
- **(무역장벽 대응강화)**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각국 관세·비관세 장벽 강화 추세, 관련 애로사항 지원기관에 적극 전달하여 협상 추진
  - ESG 정책의 '통상 규범화', 지역별 자체 공급망 강화 등 글로벌 주요 이슈·현안 및 각국 시장·동향 정보의 빠른 파악
  - '관세대응 119', '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' 등 지원 시스템 활용, 관세·통관 등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정보·솔루션 활용
  - 인증 획득·면제신청이나 공급망 진입 조건 완화, 부당한 비용 절감 등에 대한 정부의 협상 동향 수시 모니터링 및 기업별 적시 활용
- **(투자유치·인재유치)** 경제안보 강화 및 기업 역량 제고 추진
  - 관세조치, 국별 수출·입 통제, 우회수출 감시 강화 등 통상환경 변화로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 관련 주요 외투기업과 적극 협력, 또는 관련 외국기업에 국내투자 제안·지원
  - 美정부의 연구기관 예산 삭감, 비자유건 강화 등 미국發 첨단산업 핵심인재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핵심인재 유치 가능성 상승

◇ **[시장+전략] 시장 유형별 다변화 전략**

시장 유형		다변화 전략		
테마	시장	[1] 팀코리아 활용	[2] 경쟁우위 재포지셔닝	[3] 기업경쟁력 강화
[1] 美中 대체수요 유망시장	① 미국	민관합동 아웃리치	가격 우위 활용(중국산 대비)	비용절감 노력(관세·물류)
		한류 플랫폼(식품부타·콘텐츠) 경제외교 활용	품질 우위 활용 제조력 우위 활용	투자진출 다변화 무역장벽 대응 강화(관세) 투자유치·인재유치
	② 중국	민관합동 아웃리치	가격 우위 활용(미국산 대비)	
		경제외교 활용	품질·기술력 우위 활용 진출채널 다각화(지방 협력)	투자진출 다변화 무역장벽 대응 강화(비관세)
[2] 글로벌 제조업 재편에 따른 유망시장	① 아세안5 (베트남·인니· 태국·필리핀· 말련)	한류 플랫폼 활용(부티)	품질·기술력 우위 활용 제조력 우위 활용	투자진출 다변화 무역장벽 대응 강화(비관세)
	② 인도	한류 플랫폼 활용(식품부티)	품질·기술력 우위 활용 제조력 우위 활용	투자진출 다변화 무역장벽 대응 강화(비관세) 인재유치
	③ 멕시코	한류 플랫폼 활용(식품부티)	품질·기술력 우위 활용 제조력 우위 활용	투자진출 다변화
	④ 헝가리· 폴란드	한류 플랫폼 활용(식품부티)	품질·기술력 우위 활용 제조력 우위 활용	투자진출 다변화
[3] 산업화 고도화 수요 유망시장	① UAE·이집트·모로코·사우디(중동 산업화 국가)	민관합동 아웃리치 한류 플랫폼(식품부타·콘텐츠) 경제외교 활용	품질·기술력 우위 활용 제조력 우위 활용 진출채널 다각화	투자진출 다변화 투자유치
	② 독일·이탈리아·벨기에·프랑스(제조업 혁신 파트너)	민관합동 아웃리치 경제외교 활용	품질·기술력 우위 활용 제조력 우위 활용	투자진출 다변화 무역장벽 대응 강화(ESG) 투자유치·인재유치

## 작 성 자

- 구미CIS팀      박민경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박지원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진준현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이에나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심솔리나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최서연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조아영
- 아시아중아팀    강민주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박주호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한송옥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송지현

# ' 25년 수출 유망시장 다변화 전략

Global Market Report 25-015

발행일	2025년 6월
발행인	강경성
발행처	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
주소	서울시 서초구 현릉로13
전화	1600-7119
홈페이지	<a href="http://www.kotra.or.kr">www.kotra.or.kr</a>

• ISBN: 979-11-402-1371-9 (95320)



**kotra**  
Korea Trade-Investment  
Promotion Agency